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데카당스 미적특성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안 지 영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데카당스 미적특성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안 지 영

인 준 서

안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심각한 환경변화에 따른 재해와 전염병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공포감,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특징인 데카당스가 미술, 음악, 패션, 메이크업 등의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철학, 문학,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데카당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오트 쿠튀르 컬렉션(Haute Couture Collection)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데카당스의 미적 특성을 분석, 도출하여 향후 메이크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연구 모형과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문헌조사는 단행본, 논문, 학회지 등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 고찰하였다. 사례 연구는 실험성이 강한 오트 쿠튀르 컬렉션으로 한정지어 메이크업의 시각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회지,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 사례를 통하여 데카당스 미적 특성의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데카당스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폐성은 암울성과 혐오성, 저항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암울성은 생기가 없고 병적인 이미지를 저명도의 색을 이용한 아이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으며 혐오성과 저항성은 형태와 컬러의 과장, 왜곡, 피어싱, 문신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이상성은 양면성, 전설성과 신화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양면성은 두껍고 각이 진 눈썹과 윤곽을 강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중성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전설성과 신화성은 주로 창백한 피부표현과 버건디

색상의 입술표현으로 표현하거나 페일톤의 새도우와 오브제를 활용한 형태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 시대에 대한 부정을 나타냈다.

셋째, 관능성은 에로성과 도착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에로성은 브라운, 카키, 퍼플 색상의 아이메이크업 표현과 함께 골드, 실버 펠들로 반짝이는 눈매를 연출하거나 레드 버건디 색상의 입술표현과 시스루소재의 오브제를 통하여 에로티즘을 나타냈다. 도착성은 아이라인 선의 과장, 형태의 과장 등의 표현기법을 통하여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사회현상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넷째, 이국성은 동양성과 원시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동양성은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거나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의 경극의 메이크업을 묘사하고 불교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오브제의 사용 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원시성은 피부전체, 얼굴에 부분적으로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고 거친 선 처리와 토속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전쟁이나 사냥을 나가기 전 피부에 채색하는 아프리카 민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데카당스 미적 특성은 지난 세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표현요소를 기반으로 데카당스 미적 특성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개성추구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오트 쿠튀르 | 4 |
| 1) 오트 쿠튀르의 개념 | 4 |
| 2) 오트 쿠튀르의 특성 | 6 |
| 2. 메이크업 | 16 |
| 1) 메이크업의 개념 | 16 |
| 2) 메이크업의 분류 및 표현요소 | 18 |
| 3. 데카당스 | 26 |
| 1) 데카당스의 개념 및 발생배경 | 26 |
| 2) 데카당스의 예술적 특성 | 29 |
| 3) 데카당스의 선행연구 | 37 |
| III. 오트 쿠튀르 메이크업에 나타난 데카당스 미적 특성 | 40 |
| 1. 퇴폐성 | 40 |
| 1) 암울성 | 41 |
| 2) 저항성 | 45 |
| 3) 혐오성 | 49 |

| | |
|-----------------------------|-----------|
| 2. 이상성 | 54 |
| 1) 양면성 | 54 |
| 2) 전설과 신화성 | 58 |
| 3. 관능성 | 62 |
| 1) 에로성 | 63 |
| 2) 도착성 | 67 |
| 4. 이국성 | 71 |
| 1) 동양성 | 71 |
| 2) 원시성 | 75 |
| IV. 결 론 | 79 |
| 참고문헌 | 82 |
| ABSTRACT(영문초록) | 85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여우털 칼라가 달린 검은색 시레 새틴 케이프 | 9 |
| <그림 2> 일본문자가 프린트된 의상 | 9 |
| <그림 3> Mexico 드레스 | 9 |
| <그림 4> Christian Dior 2003 F/W Collection | 9 |
| <그림 5> 아프리카 드레스 | 10 |
| <그림 6> 러시아 록을 선보인 드레스 | 10 |
| <그림 7> 담비털이 달린 금색 브로케이드 러시아 코트 1 | 11 |
| <그림 8> 담비털이 달린 금색 브로케이드 러시아 코트 2 | 11 |
| <그림 9> 세미티피드 슈트 | 14 |
| <그림 10> 튜닉형태의 슈트 | 14 |
| <그림 11> 색 드레스 | 14 |
| <그림 12> 몬드리안 회화작품에 영감을 얻은 작품 | 15 |
| <그림 13> 브라크에게 영감을 받아 표현한 이브닝 가운 | 15 |
| <그림 14> 브라크에게 영감을 받아 표현한 이브닝 케이프 | 15 |
| <그림 15> Christian Dior 2012 S/S Collection | 25 |
| <그림 16> Vivienne Westwood 2014 S/S Collection | 25 |
|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2013 F/W Collection | 25 |
| <그림 18> Chanel 2014 S/S Collection 1 | 25 |
| <그림 19> Versace 2012 F/W Collection 1 | 43 |
| <그림 20> Versace 2012 F/W Collection 2 | 43 |
| <그림 21> Fred Sathal 2014 S/S Collection | 44 |
| <그림 22> Jean Paul Gaultier 2007 S/S Collection | 44 |
| <그림 23> Christian Dior 2011 F/W Collection | 47 |
| <그림 24>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Collection | 47 |

| | |
|--|----|
| <그림 25> Jean-Paul-Gaultier 2011 F/W Collection | 48 |
| <그림 26> Jean-Paul-Gaultier 2012 F/W Collection | 48 |
| <그림 27> Thierry Mugler 1990 S/S Collection | 52 |
| <그림 28> On Aura Tout Vu 2015 S/S Collection | 52 |
| <그림 29> Christian Dior 2006 F/W Collection | 53 |
| <그림 30> Riccardo Tisci 2015 F/W Collection | 53 |
| <그림 31> Stephane Rolland 2013 S/S Collection | 56 |
| <그림 32> Rad Hourani 2013 F/W Collection | 56 |
| <그림 33> Chanel 2013 S/S Collection 1 | 57 |
| <그림 34> Chanel 2013 S/S Collection 2 | 57 |
| <그림 35> Christian Dior 2014 S/S Collection | 60 |
| <그림 36> John Galliano 2009 S/S Collection 1 | 60 |
| <그림 37> Christian Dior 2010 S/S Collection | 61 |
| <그림 38> Jean Paul Gaultier 2014 F/W Collection | 61 |
| <그림 39> Christian Dior 2012 F/W Collection | 65 |
| <그림 40> Versace 2012 F/W Collection 2 | 65 |
| <그림 41> Aarmani Prive 2013 F/W Collection | 66 |
| <그림 42> Christian Dior 2013 F/W Collection | 66 |
| <그림 43> Stephane Rolland 2012 S/S Collection | 69 |
| <그림 44> Jean-Paul-Gutier 2014 S/S Collection | 69 |
| <그림 45> Chanel 2012 S/S Collection | 70 |
| <그림 46> John Galliano 2009 S/S Collection 2 | 70 |
| <그림 47> Chanel 2014 S/S Collection 2 | 73 |
| <그림 48> On Aura Tout Vu 2013 S/S Collection | 73 |
| <그림 49>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1 | 74 |
| <그림 50>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2 | 74 |
| <그림 51>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3 | 77 |
| <그림 52> Maurizio Galante 2011 F/W Collection 1 | 77 |

| | |
|--|----|
| <그림 53> Maurizio Galante 2011 F/W Collection 2 | 78 |
| <그림 54> On Aura Tout Vu 2014 S/S Collection | 78 |

I. 서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적 요소들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변화에 따른 재해 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재해현상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일본에 규모 9.0의 강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되어 현재까지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¹⁾ 최근 네팔에서도 7.8규모의 지진이 발생²⁾하였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남극의 빙하는 지난 18년 동안 전체 빙하의 18%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해면의 상승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³⁾ 이러한 재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원 부족에 따른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팽배⁴⁾해지고 있으며 세기말적 분위기가 특징인 데카당스 현상은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데카당스는 패션분야와 메이크업 분야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오트쿠튀르 컬렉션(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⁵⁾⁶⁾.

데카당스는 1880~90년대 프랑스와 영국에서 형성되어 사회적인 세기말적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로마 말기의 문학적 ‘쇠퇴’와 관련하여 조화와 균형을

-
- 1) 민중의소리, “죽음의 땅 체르노빌에서 상상한 우리의 미래, 다큐 ‘후쿠시마의 미래’” <http://www.vop.co.kr/A00000878311.html> (2015.04.28 검색)
 - 2) 아시아 투데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진공포...네팔에 이어 뉴질랜드, 미국 LA 까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04010001148> (2015.05.06 검색)
 - 3) 연합뉴스, “남극 빙하 막고있는 빙봉 녹아 해수면 상승 위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131600009.HTML?input=1195m> (2015.05.15 검색)
 - 4) 한겨레, “제3차 세계대전은 지금 진행중”.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7607.html> (2015.03.24 검색)
 - 5) 김중원(201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분석-2010 F/W~2012 S/S의 4대 컬렉션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6) 이슬(2015), “프랑스 오트쿠튀르(haute couture)의 쇠퇴와 존속에 관한 연구-문화의 사회적 생산의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4.

없고 퇴폐적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⁷⁾. 또한 데카당스는 로마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사실(史實)을 기초로 한 역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데카당스 현상은 절충주의, 통일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가치절상 등의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⁸⁾

오트 쿠튀르 컬렉션은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패션 컬렉션이다. 따라서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 디자인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며 전위적인 성격이 강한 메이크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당스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문학 분야에서 정부용(2008)⁹⁾, 한정선(2000)¹⁰⁾, 한성철, (1996)¹¹⁾, 서순승(1999)¹²⁾, 패션 분야에서는 김양희, 박선경(2002)¹³⁾ 한수연(2006)¹⁴⁾, 김창준(2012)¹⁵⁾, 메이크업 분야에서 선정희·유태순(2001)¹⁶⁾이 연구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데카당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학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메이크업의 데카당스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성이 강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나 민속복

-
- 7) 박혜경(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광기 이미지 연구-알렉산더 맥퀸 작품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4.
 - 8) 정부용(2008), “다자이 오사무 문학과 데카당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6.
 - 9) 정부용, op.cit.
 - 10) 한정선(2002), “다자이 오사무와 데카당스-후기작품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한성철(1996),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12) 서순승(1999), “토마스만의 Der Tod in Venedig의 연구-데카당스와 그 극복문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양희, 박선경(2002), “오트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연구”, *복식*, 52(8), pp.73-85.
 - 14) 한수연(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클레머 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김창준(2012),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과 토마스 만의 「트리스탄」”, *외국문학연구지*, 45, pp.29-52.
 - 16) 선정희, 유태순(2001),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pp.63-73.

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서구적 감각과 융합시키는 성격이 강한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데카당스 미적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데카당스 미적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의 디자인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회적인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패션 컬렉션 중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데카당스의 미적특성을 핵심적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오트 쿠튀르와 데카당스의 연관성과 오트 쿠튀르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기법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 학위논문과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는 인터넷 검색 엔진과 패션잡지 등을 통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범위는 데카당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트 쿠튀르 컬렉션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였으며 오트 쿠튀르에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 www.style.com의 컬렉션자료, gap press, Vogue 등 전문 패션잡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트 쿠튀르

1) 오트 쿠튀르의 개념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는 프랑스어로 ‘높은’, 혹은 ‘고급의’라는 의미인 ‘오트(Haute)’와 ‘바느질’이라는 의미의 ‘쿠튀르(Couture)’로 이루어진 단어로 쿠튀리에(couturier)라고 불리는 패션디자이너가 고객을 위해 새로운 의상을 발표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패션시스템이다.

최초의 오트 쿠튀르는 1858년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 Worth, 1825~1895)에 의해서 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워스(Worth)는 1년에 2차례 시즌별로 봄/여름, 가을/겨울 컬렉션을 소개하였다.¹⁷⁾

워스(Worth)에 이어 등장한 자크 두세(Jacques Doucet, 1853~1929), 잔드 파퀀(Jeanne Paquin, 1869~1936)등과 같은 쿠튀리에들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the Paris Exposition Universelle)에서 파리 패션디자이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오트 쿠튀르는 벨 에포크 시대(La Belle Époque), 제1차 세계대전, 재즈의 시대, 세계 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에 이어 1950년대 라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패션의 강력한 지위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들은 1911년 파리 오트 쿠튀르 조합(La

17) Gertrud Lehnert,(2005), 박수진 역, 「패션: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패션의 세계」, 서울: 예경, pp.114-115.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을 설립하여 기성복 산업인 콩펙시옹(Confection)과 차별화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중앙집권화된 패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¹⁸⁾

현재 오트 쿠튀르는 1년에 두 차례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1월에 봄/여름 의상, 7월에 가을/겨울 의상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오트 쿠튀르 패션쇼는 기성복 컬렉션인 프레타포르테(prêt à porter)와 달리 공식적으로 파리에서만 개최되고 있으며 컬렉션을 보고 고객이 의상을 주문하면 고객의 체형에 맞추어 여러 단계의 가봉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파리에 있는 오트 쿠튀르를 위한 부자재를 제작하는 수공예 공방들이 존재하고 있으며¹⁹⁾ 오트 쿠튀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의복제작기술은 파리 의상조합 산하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수하고 있다.²⁰⁾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는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Bonheur Chanel, 1883~1871),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1936~2008),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obal Balenciaga, 1895~1972)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오트 쿠튀르의 특성은 오트 쿠튀르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샤넬(Chanel), 디오르(Dior), 생 로랑(Saint Laurent),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성, 실험성으로 나타났다.

18) 송수원(2008), “영국, 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

19) 최선영(2013), “파리 오트 쿠튀르의 플리츠기법을 사용한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연구: 아틀리에 로농(Atelier Lognon)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4), p.111

20) Kawamura, Yuniya(2004).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Oxford: Berg, p.78.

2) 오트 쿠튀르의 특성

(1) 다문화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며 현대 패션에서 다문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사조와 관련이 있다.²¹⁾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출현으로 오트 쿠튀르는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²²⁾.

1909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1872~1929)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공연을 통해 동방과 아프리카의 의상이 소개됨으로써²³⁾ 프랑스인들에게 이국주의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는 터키풍의 하렘바지(Harem Pants)와 터번, 일본풍의 미나렛 튜닉(Minaret Tunic), 호블 스커트(Hobble skirt)와 같은 강렬한 색채의 동방풍 모드를 유행시키게 되고 화려한 이국적 취향을 반영한 선구자적 현대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1918년 이후 파리는 러시아인들의 망명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1920년부터 1924년까지 러시아의 영향²⁴⁾에 의상의 대부분을 러시아 민속풍의 영향을 나타내는 밝은 색상의 자수로 장식하였다²⁵⁾. 샤넬(Chanel)은

21) Storey, John(1996),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26.

22) 최혜정(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23) Kennet, F.(1994), 「Secret of the Centuries」, New York : Orbis Publishing Ltd., p.27.

24) Charles-Roux, Edmonde(1979), 「Le Temps Chanel」, Paris: Chene-Grasser, p.130.

25) 이미숙(1998), “샤넬 스타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5.

1920년대 초반 러시아의 페젠티 풍 의상에 선명한 색상의 자수를 놓거나²⁶⁾ 풍부한 털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영향을 의상에 반영하였다. <그림 1>은 1918년 샤넬(Chanel)이 발표한 의상으로 시레 새틴(cire satin) 케이프로 만든 털이 트리밍되어 있다.

샤넬(Chanel)이외에도 디오르(Dior), 생로랑(Saint Laurent)은 이국적인 요소를 복식에 도입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다.

<그림 2>는 1953년 디오르(Dior)가 발표한 'Quiproquo'의상으로 일본 문자가 프린트된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서구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양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의상이다.

또한 <그림 3>은 1953년 디오르(Dior)가 멕시코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Mexico'의상으로 드레스의 상의 뿐 만 아니라 오간자 소재의 스커트 부분 풍성하고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의상이다²⁷⁾.

<그림 4>는 디오르(Dior)의 뒤를 이어 패션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1960~)가 발표한 2003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일본의 전통의상 기모노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어깨와 소매 부분에 입체적인 느낌을 극대화시켜 상의를 표현하였다. 또한 소재는 광택이 있는 새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동양의 전통 문양인 매화 문양을 크기를 작거나 큰 문양으로 부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양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5>는 1967년 S/S 컬렉션에서 생로랑(Saint Laurent)이 '아프리카 룩(African Look)'으로 원시적인 외관과 정글 주얼리들로 가슴과 힙을 주렁주렁하게 덮는 격자무늬의 미드리프가 돋보이는 아프리카 미니드레스들로써 원시적인 아프리카 민속의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1976년 F/W 컬렉션에서 생로랑(Saint Laurent)이 러

26) 이미숙, *ibid.*, p.27.

27) Martin, Richard., Koda, Harold (1996), 「Christian Dior」,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123.

시아의 에스닉 감각이 농축된 작품²⁸⁾으로 '70년대 중반의 빅 룩을 바탕으로 눈부신 실크의 집시스커트와 담비털이 달린 금색 브로케이드 기병대 코트 같은 호화로운 의상들이 등장했다(그림 7)(그림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트 쿠튀르의 다문화성은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나 민속복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소재, 문양, 형태 등에 도입하여 서구적 감각과 융합시킴으로써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28) Steele, Valerie, Solero, Irving(2000), 「Fifty years of Fashion」, New Haven : Yale p.100.



<그림 1> 여우털 칼라가 달린
검은색 시레 새틴 케이프
Chanel 1918 Collection
출처: Chaney(2012), 「CoCO
Chanel: An Intimate Life」,
London: Penguin Books p.84



<그림 2> 일본문자가 프린트
된 의상
Christian Dior 1953 Collection
출처: Martin, R., Koda, H.(1996),
「Christian Dior」,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89.



<그림 3> Mexico 드레스
Christian Dior 1953 S/S
Collection
출처: Martin, R., Koda, H.(1996),
「Christian Dior」,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123.



<그림 4> Christian Dior 2003
F/W Collection
(출처:www.style.com)



<그림 5> 아프리카 드레스

Yves Saint Laurent 1967 S/S Collection

출처: Steel, V., Solero, I. (2000), 『Yves Saint Laurent Fifty Years of Creation』, New Haven : Yale, p.141



<그림 6> 러시아 록을 선보인 드레스

Yves Saint Laurent 1976 F/W Collection

출처: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3), 『Yves Saint Laurent』, New York: Clarkson N. Potter, Inc., pp.56-57.



<그림 7> 담비털이 달린 금색
브로케이드 러시아안 코트 1
Yves Saint Laurent 1976 F/W
Collection

출처: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1983), 「Yves Saint Laurent」, New York: Clarkson N. Potter.Inc., p.58.



<그림 8> 담비털이 달린 금색
브로케이드 러시아안 코트 2
Yves Saint Laurent 1976 F/W
Collection

출처: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1983), 「Yves Saint Laurent」, New York: Clarkson N. Potter.Inc., p.59.

(2) 실험성

오트 쿠튀르의 실험성(Avant-gardism)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움을 표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예술적 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를 반영하는 오트 쿠튀르의 실험적 특성으로 인해 순수 예술 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기존의 미학 방식이나 사고체계를 뒤엎는 실험적 성격의 아방가르드 양식이 나타난다. 즉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 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정신으로 인해 새로운 미적 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 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미술이다.²⁹⁾

디오르(Dior)는 기교적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복식의 조형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1947년 디오르(Dior)는 뉴욕(New Look)을 발표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입혀졌던 남성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디오르(Dior)가 디자인한 조형적인 특징은 과잉장식을 없애고 직물이 가지는 면의 구성을 그대로 구조로 표현한 점이다. 디오르(Dior)는 1950년대 ‘디오르 라인 알파벳 시대’에 이르는 전위적 입체조형을 발표하면서 파리 오트 쿠튀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⁰⁾.

또한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구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인체를 중요시하며 외적 표현을 위해 소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재단에 능숙하였으며 신체를 추상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다.³¹⁾ <그림 9>의 세미피티드 슈트(semi fitted suit)는 1951년 발표한 의상으로 여성의 인체를 억압하는 코르셋을 제거하고 날씬하지 못한 사람을 날씬하게

29) 노경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28.

30)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p.210-211.

31) 박명희,장애란(1995),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복식 25호. p.221.

보이도록 착시의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1955년 튜닉 형태의 슈트를 1957년 인공적인 페미닌한 라인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 색 드레스(sack dress)를 발표하여 자연스러운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였다(그림 10)(그림 11).

<그림 12>는 생로랑(Saint Laurent)이 1965년 F/W 컬렉션에서 발표한 의상으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1872~1944)의 회화를 담은 하얀색 저지 드레스이다. 하퍼스 바자(Harpers Vazaar)는 이 의상에 대하여 “미래의 옷이다. 단정적 추상, 수기 신호의 깃발, 명쾌한 흰색 저지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평하였다³²⁾.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생로랑은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 고크갱(Paul Gauguin,1848~1903), 마티스(Henri Matisse,1869~1954), 고흐(Vincent van Gogh,1853~1890), 브라크(Georges Braque,1882~1963) 등 예술가의 오마주(hommage)를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며 예술과 패션의 접점을 시도하여 아름다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림 13><그림14>는 1987년 브라크(Braque)의 새 모티브를 새틴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 위에 응용한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토 쿠튀르의 실험성은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새롭고 기하학적인 복식형태를 강조하거나 순수 예술에 접목시키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32) 이즘 패션 산업연구소(1993), 「이브생로랑」, 서울: 이즘 패션산업연구소, pp.25-29.



<그림 9> 세미티피드 슈트
Balenciaga 1951 Collection

출처: L'officiel de la mode, n
353-354 표지.



<그림 10> 튜닉형태의 슈트
Balenciaga 1951
Collection

출처: L'officiel de la mode n
353-354, p.140.



<그림 11> 색 드레스
Balenciaga 1957
Collection

출처: L'officiel de la
mode n 427-428 표지.



<그림 12> 몬드리안 회화작품에 영감을 얻은 작품,
Yves Saint Laurent 1965 F/W Collection
출처: Yves Saint Laurent - His Life and Times DVD.



<그림 13> 브라크에게 영감을 받아
표현한 이브닝 가운
Yves Saint Laurent 1988 S/S
Collection

출처: Foundation Pierre Berge-Yves
Saint Laurent(2008), 「Yves Saint
Laurent Style」, New York: Abrams
Books, p.186,



<그림 14>브라크에게 영감을
받아 표현한 이브닝 케이프,
Yves Saint Laurent 1988 S/S
Collection

출처: Foundation Pierre
Berge-Yves Saint Laurent(2008),
「Yves Saint Laurent Style」,
New York: Abrams Books,
p.186.

2. 메이크업

1)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make-up)은 우리말로로는 흔히 화장이라고 일컬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이크업은 결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말하며, 내면적 부분과 외면적 부분을 조화롭게 상호 작용시켜 자신만이 가지는 독특한 개성을 연출하여 미적 감각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³³⁾³⁴⁾

메이크업은 코스메틱(cosmetic)을 포함한 의미로 그리스어인 코스메티코스(cosmeticos)에서 유래되었으며 “잘 정리하고 감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³⁵⁾ 영어의 메이크업(make-up),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끼아쥐(maquillage)등에 해당된다. 메이크업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라슈(Richard Crashou, 1612~1649)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보다 앞선 16세기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n Shakespear, 1564~1616)의 희곡에서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³⁶⁾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질은 메이크업을 가리킨다. 16-17세기를 통해 연백(鉛白)을 원료로 만든 분의 페인트(Paint)라 불렀고,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칠 하는 것을 페인팅이라 하였다.³⁷⁾

33) 장태수(2002), 「미용학개론」, 서울: 교문사, p.101.

34) 박춘심(2001), 「메이크업」, 서울: 광문각, p.32.

35) 강근영(2003),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p.13.

36)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2001~2005 파리 컬렉션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메이크업은 대중적 의미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³⁸⁾ 산업화의 흐름과 더불어 화장품 공업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화장의 보편화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또한 화장품의 사용은 생활의 근대화로 편리와 여가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적인 것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여 보편화 되었다.³⁹⁾

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감성과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등장과 사치로 문화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더 이상 획일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은 표현의 무제한성을 허용하고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미술 사조를 반영한 메이크업은 재료와 표현방법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메이크업을 창조적인 예술표현의 한 장르로 낸다.⁴⁰⁾

이와 같이 메이크업은 인류문명이 생기면서부터 타인에게 미의 위엄성을 과시하고자 가면을 이용하거나 채색을 하는⁴¹⁾ 실용적인 수단에서 시작되어 발전해왔으며, 현대에는 외모를 통해서 성, 연령, 문화, 직업, 사회적 역할, 개성, 이미지 등 까지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⁴²⁾으로써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정의 된다.⁴³⁾

37) 변정민(2001), “반미학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38) 방수진(2008), “자크테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39) 노선옥(1998),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슈에무라와 이라나 하키비의 메이크업 아트를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40) 이미자(2008),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2000~2008년 4대 컬렉션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41)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서울: 자유문학사, p.25.

42) 변정민(2012), op.cit., p.4

43) 이경은(2007), op.cit., p.7.

2) 메이크업 분류 및 표현요소

(1) 메이크업 분류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up), 아트메이크업(Art Makeup),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up)으로 분류되어지며 표현의 목적에 따라 외모에 미화에 중점을 두고, 시대적 유행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여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된다.⁴⁴⁾

① 뷰티 메이크업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up)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행해지는⁴⁵⁾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용적인 메이크업 행위를 말하며 내면의 정신적인 측면까지 표현해내는 생산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뷰티 메이크업은 아름다운 마음의 외적 예술의 표현 방식으로써⁴⁶⁾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시대적 유행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여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⁴⁷⁾

매와 장소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 하는 뷰티메이크업은 계절에 따라 색상과 텍스처(texture)를 달리 표현하는 센스가 요구된다.⁴⁸⁾

뷰티 메이크업 종류에는 내추럴 메이크업(Natural Makeup), 웨딩 메이크업(Wedding Makeup), 계절 메이크업(Season's Makeup), 패션 메이크업

44) 방효진(2013),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에 따른 시지각 반응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45) 한보라(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2002년~2006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46) 오희진(2011), “뷰티메이크업에 나타난 에어 브러쉬 활용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47) 방효진(2013), *ibid.*, p.5.

48) 한보라(2007), *op.cit.*, p.8.

(Fashion Makeup), 파티 메이크업(Party Makeup), 포토 메이크업(Photo Makeup), 광고 메이크업(CF Makeup)이 있다.

② 아트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은 ‘Art’와 ‘MAKE UP’의 합성어로 주로⁴⁹⁾ 미적 용도의 뷰티 메이크업과 예술성이 부여된 아트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인체에 표현하는 조형 예술분야로써 아티스트의 사상과 이념을 엿 볼 수 있다.⁵⁰⁾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서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모델의 얼굴과 몸에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여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한계를 넘은 것을 말하며,⁵¹⁾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⁵²⁾

아트 메이크업은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대중과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색채를 통한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종류로는 <그림 15>와 같은 오브제와 색을 이용하여 나타낸 아트메이크업(Art Makeup),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바디아트(Body Art)가 있다.⁵³⁾

49) 박주영(2013),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 유기적인 구조 형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p.6.

50)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51)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p.573.

52)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53) 강현신(2011), op.cit., p.4.

③ 스테이지 메이크업

스테이지 메이크업은 무대분장을 뜻하는 것으로 연극, 영화, 패션쇼 등 특정목적에 따라 또는 의상에 따라서 색과 선을 결정하고 무대크기와 관객과의 거리, 그리고 반드시 조명에 따른 효과도 참조해야하는 메이크업⁵⁴⁾을 말한다. 보통 분장(Straight makeup), 성격 분장(Character makeup), 회화적 페인팅 분장(Painting makeup)과 환타지 분장(Fantastic makeup), 특수분장(Special effect Makeup), 패션 메이크업(Fashion Makeup) 등이 있다.⁵⁵⁾

패션 메이크업은 패션의상이나 주제와 연계하여 독특한 소재 및 표현기법을 메이크업으로 디자이너의 예술적 의미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서⁵⁶⁾ 패션성과 유행성을 부여하며,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소품 등 토탈 패션의 요소로서 의상에 따라 색과 선을 정하고 <그림 16>과 같이 색상이나 질감에 중점을 두거나 주제에 부합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주제에 맞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⁵⁷⁾

54) 김현미(2010), op.cit., p.40.

55) 유윤주(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조화장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질감 표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2-43.

56) 김현미(2010), op.cit., p.42.

57) 김종원(2010), op.cit., p.11.

(2) 메이크업의 표현요소

① 형태

형태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⁵⁸⁾ 메이크업에서의 형태는 2차원적인 셰이프(shape)와 3차원적인 폼(form)이 혼합된 형태를 갖는다.⁵⁹⁾

점은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위치만 있고 길이, 폭, 넓이 등의 물리적 양이 없으며, 디자인에 있어서 형과 크기, 면을 가질 수 있다

점은 위치, 점과 점 사이의 공간, 점의 배열에 따른 운동감, 리듬감, 원간감 등을 나타내어 양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준다.⁶⁰⁾

선은 메이크업의 요소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직선, 곡선, 절선을 3대 기본 선이라고 한다.⁶¹⁾

선은 2차원적 요소로써 선의 강약에 따라 <그림 17>과 같은 착시현상과 공간적 환상을 연출한다.

선은 굵기,⁶²⁾ 모양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주며, 직선은 남성적 느낌으로 활동적이고 강하고 딱딱하게 보이고, 곡선은 여성적 느낌으로 부드럽고 온화하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⁶³⁾

면은 평면의 형태로 선이 그 자체에 담긴 고유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경로를 말하며, 길이, 폭(넓이)이 있으며, 두께는 없고 공간구성의 기

58) Howard Eves 저, 허민 역(1995), 「수학의 기초와 기본개념」, 서울: 경문사, p.58.

59)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6.

60) 박정신(2008) “뵤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5-19.

61)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0.

62) 김설리(2009),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특징”, *복식*, 4(7), p.564.

63) 장근영(2003), *op.cit.*, p.107.

본단위로 형을 만드는 형상요소로 입체를 생성한다.⁶⁴⁾ 면은 부드러움이라든가 딱딱함이라는 질료의 느낌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⁶⁵⁾

메이크업에 있어서 면은 입체적 표현과 공간의 경계를 만드는 요소로 얼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⁶⁶⁾ 주로 아이섀도우(Eye Shadow), 볼(Cheek), 입술(Lip)의 메이크업에 적용된다.

② 색상

색은 빛에 의해 지각되는 감각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인간의 지각반응에서 색은 형태에 우선하여 그 자체의 고유한 심리적 힘을 가짐으로써 본래의 이미지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색은 개인이나 사회의 특질을 반영하는 강력한 요소로⁶⁷⁾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생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⁶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⁶⁹⁾

회화의 채색에 대한 규칙과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색채 생성의 원리를 통해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대립적으로 생겨난다고 하였으며,⁷⁰⁾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은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의 요소로 개인의 기호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준다.⁷¹⁾

64) 강근영(2003), op.cit., p.108.

65) 정승희(2010), op.cit., p.40.

66) 강근영(2003), op.cit., p.107

67) ibid., p.108

68) 이정은(2003), “아이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69) 정승희(2010), op.cit., p.43.

70)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저, 장희창 역(2003), 「색채론」, 서울 : 민음사, p.8.

71) 김용선·이정민(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팝아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회화적 특성을 갖는 색은 메이크업에서 모델에게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으며, <그림 18>과 같이 색상의 조화로 주변과의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내적 이미지의 표출로써 다양성을 갖는다.⁷²⁾

③ 질감

질감은 표면상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촉감을 말하며,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으로 구분되어⁷³⁾ 감각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물체의 표면질(Surface 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촉각적 질감은 접촉을 통한 질감을 말하고, 시각적 질감은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개개의 성질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각되는 성질을 말한다.⁷⁵⁾

메이크업에서의 질감은 사물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촉감, 즉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촉각에 호소하며 메이크업에서 <그림 16>같은 건조한 질감(matte), 윤기 나는 질감(glossy), 반짝이는 질감(pearl, shimmer, glitter) 등의 표현방법이 있으며, 광택의 유무, 광택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구분된다.⁷⁶⁾

질감 표현으로 단정하고 정숙한 이미지, 젊고 싱그러움, 건강하고 활동적인, 현대적인 느낌과 관능적이며, 요염한 느낌을 만들어낸다.⁷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크업의 표현요소는 직선, 곡선, 사선의 굵기와 모양에 따른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고, 면의 범위로 공간감, 질감, 입

91), p.177.

72) 박정신(2008), op.cit., p.17.

73) 강근영(2003), op.cit., p.107.

74) 정승희(2010), op.cit., p.46.

75) 강근영(2003), op.cit., pp.108.

76) 박정신(2008), op.cit., pp.15-19.

77) 박연희(2002),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18.

체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색의 색상과 명도, 채도를 이용하여 내적이미지를 표출하고 심리상태를 표현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오브제를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Christian Dior 2012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2, issue.8, p.23」



<그림 16> 질감을 이용한 패션 메이크업
Vivienne Westwood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vivienne-westwood-red-label-beauty-ss-14-62830.html#0>(2015.04.12 검색)



<그림 17> 선을 통한 형태변형 메이크업
Jean Paul Gaultier 2013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3016&pt=3#206274_1_4(2015.04.12 검색)



<그림 18> 색을 통한 색채조화 메이크업
Chanel 2014 S/S Collection 1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chanel-beauty-ss-14-64356.html#0> (2015.03.12 검색)

3. 데카당스

1) 데카당스의 개념 및 발생배경

데카당스는 라틴어 명사 데카덴티아(decadentia)에서 파생된 언어로써⁷⁸⁾, 실제로 사용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가장 빠른 기록은 13세기 중세 라틴어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데카당스의 어의는 주로 1880, 90년대의 프랑스, 영국에서 형성된 것으로, 우선 로마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史實을 기초로 한 역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⁷⁹⁾ 데카당스는 특히 로마 말기의 문학적 ‘쇠퇴’와 관련되며 조화와 균형을 잃고 부도덕함에 빠진 고대 로마 말기의 문화적 상태를 부정적으로 가리키며⁸⁰⁾ 일종의 무력감 속에서 일면적이고 선정적 자극을 선호하거나 괴상하고 병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⁸¹⁾ 특히 병적인 감수성과 탐미적인 경향, 비도덕적 자극의 향락으로 치닫는 퇴폐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⁸²⁾

데카당스는 19세기 말엽 프랑스에서부터 일어난 문학의 한 경향이며 예술 양식을 칭하는 용어로써 지성보다 관능에 치중하고 죄악과 퇴폐 속에서 매력과 아름다움을 탐색하려 했던 문인 예술가들의 활약을 칭하며,⁸³⁾ 데카당스에 대한 모든 비평가들은 다소 이견은 있으나 공통적으로 데카당스의 기원과 출발을 19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상황에서 찾았다.

먼저 데카당스의 탄생을 주도한 프랑스는 전시대 문학운동에 대한 안티테제(Anti-thèse)로 일어난 문예사조로서 데카당스가 형성된 이유는 프랑스

78) 오양진(2008), 「데카당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8-9.

79) 정부용(2008), op.cit., p.6.

80) 오양진(2008), op.cit., p.8.

81) 정부용(2008), op.cit., p.6.

82) 박혜경(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광기 이미지 연구-알렉산더 맥퀸 작품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74.

83) 이숙연(2009), 「코디네이트 미학」, 서울: 훈민사, p.104.

의 보불전쟁⁸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⁵⁾

즉, 1870년 보불 전쟁에서의 패배가 비관론과 쇠퇴의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프랑스 사회가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비탈길로 내몰리지는 않았던 점에서 세기말의 데카당스가 역사적 쇠퇴과는 차원이 다른 문화적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⁶⁾ 이는 데카당스본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퇴보라는 개념보다 진화를 의미하는 혁명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19세기 퇴폐적인 종말기의 사상이나 문화 예술의 퇴폐·회의·절망·염세·향락적인 경향의 프랑스의 병적인 현상들은 점차 유럽전역에 파급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데카당스'의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⁸⁷⁾

반낭만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의 프랑스 비평가 데지를 니사르(D.Nisard, 1806~1888)는 '데카당스 스타일'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테오필 고티에(Théophile Gautier, 1811~1872)가 그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는 데카당스 현상들은 지나치게 섬세한 것, 몰락 현상을 통한 매혹, 지나칠 정도로 침예화된 세부 사항과 누앙스에 대한 집착, 섬세함에 따른 추한 것과 도착적 및 충격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 등으로 요약하였다.⁸⁸⁾

테오필 고티에는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 1821~1867)의 <악의 꽃>에 대해 역사적인 데카당스와 시의 절정을 논리적으로 결부시켜 설명하였고, '보들레르'는 데카당스 특질의 소유자로서⁸⁹⁾ 현실의 거부, 폐미시즘, 신비주의, 몽상, 마약, 이국취미 등은 세기말의 총아라 하였으며, 이는 데카당스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전이되어 발전 할 수 있게 되

84) 보불 전쟁 : 1870년7월 19일-1871년3월10일, 유럽대륙에서 프랑스의 주도권이 종식되고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제국을 성립시킨 전쟁.

85) 한성철(1996), op.cit., p.14.

86) 류진현(2004), "문화현상으로서의 <데카당스>-19세기말 프랑스 문학의 한 흐름-", *불어불문학연구*, 58, p.469.

87) 정부용(2008), op.cit., p.7.

88) 안유경(2010), "사오쉴메이 시의 데카당스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89) 정부용(2008), op.cit., p.8.

었다. 이로써 데카당스는 혼란과 갈등으로 난잡했던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예고와 시작, 발전, 창조라는 개념으로, 근대적이라는 의미로 인식 할 수 있다.⁹⁰⁾

데카당스는 회화, 문학 등의 장르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으며, 낭만주의, 유태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등 내면과 주관 을 비정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장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데카당스의 본질적 개념은 될 수 없으나 데카당스의 예술의 특성은 유태주의와 상징주의, 유겐트 양식 등으로 크게 대별되어 나타났다.⁹¹⁾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데카당스의 예술적 특성은 세기말적 시대적 분위기와 암울한 시대적 배경으로 태어난 데카당스 문학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태주의, 상징주의 유겐트양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90) 정부용(2008), op.cit., p.9.

91) 김양희·박선경(2008), op.cit., pp.75-76.

2) 데카당스의 예술적 특성

(1) 유티주의

탐미주의(耽美主義) 라고도 하며 원리적으로는 순수주의에 통하는데 영국, 미국에서는 순수미학, 순수 유티주의라 한다.⁹²⁾ 넓은 의미에서의 유티주의는 미적 향수(享受) 및 미적 형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생관·세계관(世界觀)을 뜻하고, 에피쿠로스의 이름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근대에 와서 셸링(Schelling, Friedrich Wilhelm, 1775~1854)이나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예술 사조로서의 유티주의는 예술지상주의의 한 지류로서 19세기 후반에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³⁾

유티주의는 미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교훈적인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악마주의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었고 오직 미 자체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을 중시한 결과 관능적 쾌락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유티주의의 특징 일면은 상징주의로 계승하였고,⁹⁴⁾ 낭만주의 운동과 함께 나타난 예술을 위한 예술, 상징주의의 발흥과 관련하여 발전된 순수시의 개념,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의 활동이 벌어지던 무렵의 댄디즘, 데카당스·보헤미안적 경향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유티주의에 포괄된 여러 경향들은 그 나라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구호아래의 공통된 개념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⁹⁵⁾

92) 네이버 지식백과, “유티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878&cid=42642&categoryId=42642>, (2015.05.02 검색)

93) 네이버 지식백과, “유티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421&cid=40942&categoryId=32856>(2015.04.29 검색)

94) 네이버 지식백과, “유티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421&cid=40942&categoryId=32856>(2015.04.29 검색)

95) 김경진(2010), “邵洵美의 유티주의 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유미주의는 19세기 문학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⁹⁶⁾ 유미주의 사조는 프랑스 고담파⁹⁷⁾의 한 사람이었던 고티에를 시작으로 부르주아 가치를 공격하고, 예술이 사회의 유용성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⁹⁸⁾ 와일드(Wilde)나 조리스 칼 위스망스(Joris-Karl Huysmans, 1848년~1907년) 등과 같은 작가들이 주도하여 예술이 윤리와 정치, 사회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던 예술가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⁹⁹⁾

유미주의 미술은 복잡한 색채조합, 일본 문화에 대한 경도와 미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교묘한 기교의 과시, 한 분야의 예술을 다른 분야의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재치 등을 특징이며, 유미주의 문학에 영향을 받았던 유미주의 미술가들은 관람자에게 감각적인 동시에 지적인 자극을 주는 복잡하고 암시적인 작품을 추구하였다. 즉, 유미주의 미술가들은 섬세하고 복합적인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작품의 주제보다는 작품 자체가 예술적인 사물로서 인식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¹⁰⁰⁾

흔히, 세기말이라고 일컫는 20세기의 마지막 약 20년간에 절정을 이루었던 이 사조는, 보를레르(Baudelaire), 고티에(Gautier), 와일드(Wilde) 등이 그 대표자들이며, 유미주의는 예술관, 인생관, 그리고 문학예술의 실제적 경향이라는 세 가지 국면에서 고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¹⁾

96) 스티븐리틀, 조은정 역(2005), 「손에 잡히는 미술사조」, 서울: 예경, p.92.

97) 고담파(Parnassiens): 고티에의 뒤를 이은 일군의 시인들. 시의 형식적이고 회화적 아름다움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감정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반 낭만파의 입장에 섰다.

98) 김경진(2010), op.cit., p.14.

99) 스티븐 리틀(2005), op.cit., p.92.

100) Ibid., p.90.

101) 위키백과, “유미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B%AF%B8%EC%A3%BC%EC%9D%98> (2015.04.29 검색)

(2) 상징주의

1870년대 이후 프랑스는 기존 가치 체계의 붕괴에서 오는 정신적 공황을 심각하게 체험하면서 극단의 회의사상, 퇴폐주의(décadentisme), 유태주의(esthétisme), 정신적 무정부 상태(an-archisme) 등에 깊이 빠졌으며, 이와 같은 사회 풍조와 정신 현상을 바탕으로 붕괴된 가치 세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과 문학 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상징주의다.¹⁰²⁾

1880년대를 전후하여 20세기 초까지 유럽전역에 만연한 세기말의 특징적인 예술사조로 등장한 상징주의는¹⁰³⁾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 기반을 두고 낭만주의로부터 유래 하였으며,¹⁰⁴⁾ ‘고답파(高踏派)’와 자연주의의 유물론적 태도에 대하여 정신주의적이고 관념적인 반동으로 발생한, 문학과 예술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말한다.¹⁰⁵⁾

문학 분야에서 주로 전개된 상징주의운동은 물질주의와 과학 및 이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벗어나 내면세계와 감각과 상상력에 집중하였으며, 인간의식구조와 삶의 질적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 성숙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19세기 정치적 불안 등은 도피적인 상징주의 예술의 배경이 되며 동시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예술을 가능하게 했다.¹⁰⁶⁾

넓은 의미로 보면 상징주의 운동은 문학에서 주도된 것으로, 시, 회화 모두 보들레르의 작품 『악의 꽃』을 상응(Correspondance)에 기초한 직관적인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들레르는 향기, 색채, 소리, 감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전달해야 하며, 예술도 언어, 시각, 음악, 물질적 실체와는 독립된 정신의 상태와 생각을 환기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02) 김기봉(2000), 「상징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p.19,

103) 스티븐 리틀(2005), op.cit., p.90.

104) 니콜 튀펠리, 김동윤 역(2005), 「19세기 미술」, 서울: (주) 생각의 나무, p.229.

105) 김경란(2005), 「프랑스 상징주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18,

106) 김미현(2012), “사실주의와 상징주의 미술작품에 나타난 공간성에 관한 연구-구스타프 쿠르베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8.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의 실증적 표현에 대한 대립 및 저항으로 나타나,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내면, 관념 등을 상징, 우의, 표징 등의 수법으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¹⁰⁷⁾

상징주의 회화 작품의 경우 1885-1895년 전성기를 누렸으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상징주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아카데미즘,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물질주의와 실증주의, 산업문명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¹⁰⁸⁾ 현실을 꿈으로 대치하고 현실 속에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시킴으로써 인간성의 해방을 갈구하였다. 특히 상징주의 미술은 자연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세계로 시선을 돌려¹⁰⁹⁾ 물질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암시하고, 상징주의 미술가들에 의해서 그려지는 자연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외형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어두운 의미를 폭로하려하였다.¹¹⁰⁾

상징주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비밀스러운 것에 탐닉하고 괴상한 옷차림과 풍자시, 선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상류사회의 멋쟁이로 비쳐지곤 하였고 또 하나의 특징은 혼란되고 모순적인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육체를 통해서 모호한 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양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¹¹¹⁾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음악이나 미술로부터 연유한 테마들이 보편적인 형태로 개인적관심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관심을 보였고,¹¹²⁾ 뵘클린(Arnold Böcklin, 1827~1901), 제임스 앤소르(James Sydeny Ensor, 1860~1949),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삶과 죽음을, 조

107) 선정희, 유태순(2001), op.cit., pp.64-65,

108) 니콜 튀펠리(2005),op.cit., p.229.

109) 황지호(2008),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dy Painting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110) 선정희·유태순(2001), op.cit., pp.55-56.

111) 스티븐리틀(2011), op.cit., p.92.

112) 니콜 튀펠리(2005), op.cit, p.123.

반니 세간티니(Giovanni Segantini, 1858~1899), 페르디낭 호들러(Ferdinand Hodler, 1853~1918),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은 욕망과 사랑을 다뤘으며, 그 밖의 상징주의자들은 바닷가나 숲 속에서 자연과 신성, 시간에 대한 명상을 즐겼고, 욕망과 죽음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 여성 모습도 많이 나타냈다.¹¹³⁾

19세기 상징주의예술은 일상적인 물질세계를 초월한 정신세계와 연결시켜 인간을 이해하려는 예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감지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됨으로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비롯한 낭만적 정서를 예술로 승화시켜 그 어떤 규칙의 제약에도 벗어났다.¹¹⁴⁾ 상징주의 특성은 사물의 이면에 들어있는 정신성을 모색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현실을 관념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¹¹⁵⁾ 주제적·문화적 측면과 서로 대립된 순수 조형적 구성이라는 관념에서 이해해야 하며, 세기말 아르누보와 복합되면서 널리 파급되었다.¹¹⁶⁾

(3) 유겐트 양식(유겐트 스타일)

아르누보의 독일식 명칭으로¹¹⁷⁾ 유겐트 스타일(Jugendstil)은 전통에 대한 항의와 단절,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치와 형식의 추구라는 이념 아래 의식적으로 고안된 젊은 양식을 뜻하며,¹¹⁸⁾ ‘청순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될

113) 황지호(2008), op.cit., p.19.

114) 양숙희(1993), “유럽 상징주의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7.

115) 안성경(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116) 유우정(2001), “분장(Make-up)이 현대미술에 미친 영향-마르셀 뒤샹, 모리무라 아스마사, 신디셔먼의 작품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17) 네이버 지식백과, 유겐트 스타일, 네이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913&cid=43667&categoryId>,(2015.05.02 검색)

118) 목승숙(1997), “유겐트스타일의 문학적 수용-호프만스타일의 초기 산문의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수 있다.

유겐트양식은 19세기 말 유럽 예술에 있어서 개혁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창작이념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 성립되었고,¹¹⁹⁾ 새롭고 풍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조형의 탐구로써 장식예술의 새로운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동떨어지거나 소외된 발현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풍미했던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겐트양식은 19세기말 자본주의에 의한 물질 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형태를 발견하기 위해 일어난 화려한 예술운동으로써, 당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가속화 된 삶의 기계화, 평준화, 비(非)인간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기계적인 형태를 피하고, 장식적 스타일을 중시한 국제적인 미술 사조를 일컫는다.¹²⁰⁾ 1900년 파리의 만국박람회를 지배하고, 건축, 가구, 실내 장식, 장신구, 선전용 포스터, 소설, 삽화 등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예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¹²¹⁾

유겐트 양식의 탄생은 19세기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생산품의 품질 동질화’, ‘제품의 외관의 예술성 결여’와¹²²⁾ 당시 사회에 만연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제조업자의 임의대로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묵인하여 조악한 재료와 낮은 기술이 산업계를 지배한 결과에 대한¹²³⁾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형태를 발견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난 예술운동이다.¹²⁴⁾

아르누보라는 용어는 1895년 12월 함부르크의 미술상인 지그프리트 빙(Siegfried Bing, 1838~1905)이 새로운 작업 방향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

119) 오정수(2012), “현대 주얼리에 반영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예술 양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20) Ibid., p.13.

121) 이경희(2007),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연구 : 아르누보 양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122) 김주연(2002),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식물의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123) 이경희(2007), op.cit., p.15.

124) Ibid., p.13.

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가구와 실내장식, 집기류 등의 미술 공예점 메종 드 라르누보(La Maison de l'Art Nouveau: '새로운 예술의 집'이라는 뜻)를 개점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¹²⁵⁾ 아르누보는 형성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주의를 타파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과거의 양식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정통파들이 지녔던 잘 알려지지 않고 진부한 것들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아르누보의 형성과정에 또한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국취향과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⁶⁾ 이처럼 아르누보에 영향을 미친 이국취향은 세계적인 교통망의 발달과 만국박람회 등 국제적인 문화, 예술 교육의 강화, 유럽 제국의 식민지 정책 등으로 인해 일본 외에 동양 여러 나라,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어 국가 간의 상호 교류의 활발해지면서 국제성을 띄게 됨으로써, 미(美)의 대중화가 실현된¹²⁷⁾ 이후 각국의 여러 도시로 퍼져 나가 프랑스에서는 아르누보(Art Nouveau),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Jugendstil), 이탈리아에서는 스틸레 리버티(Stile Liberty),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션시온(Session), 스페인에서는 아르테 호벤(Arte joven) 또는 모더니스타(Modernista), 영국과 미국에서는 모던 스타일(Modern Style)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불려졌다.¹²⁸⁾

아르누보의 흐름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예술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며, 월터 크레인(Walter crane)은 영국잡지 『Art Nouveau Illustrated』에서 “예술가들을 수공업자로 그리고 수공업자들을 예술가로 변환시키기”라고 표현하며, 시대의 특징을 단언한 것처럼 예술과의 접목으로 인해 진보적이고, 독창적,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5) 오정수(2012), op.cit., p.8.

126) 한혜연,(2005), “아르누보 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만화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27) 이경희(2007), op.cit., pp.15-16.

128) 오정수(2012), op.cit., p.7.

아르누보는 역사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자연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동·식물의 모든 유기적 생명체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를 유연하고 유동적인 곡선의 디자인으로 독창적이고 자유롭게 전개하며 다양하고 무한한 창조 활동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출하여 율동적인 섬세함과 유기적인 곡선의 장식패턴으로 이어져 나아갔다.¹²⁹⁾

아르누보는 세기말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자극을 받은 새로운 예술로서 유티주의 및 상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다.¹³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카당스의 예술적 특성은 문학에서 비롯되어 예술 전반에 걸쳐 유티주의, 상징주의, 유겐트 양식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퇴폐주의의 퇴폐성, 에로, 암울, 이상, 혐오, 괴기스러움, 공포, 원시, 전설과 신화, 이국적 취향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129) Ibid., pp.14-15.

130) 김주연(2002), op.cit., p.6.

3) 데카당스 선행연구

데카당스의 선행연구로는 문학과, 회화에서 이루어졌다.

문학에서는 정부용(2008)¹³¹⁾이 데카당스를 ‘데카당스는 전통의 부정과 파괴가 주된 특성으로 그 이면에는 새로운 이상과 세계를 추구, 혹은 창조와 건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모던적 특성이다.’라고 하였고, 이정호(2011)¹³²⁾는 데카당스를 ‘유미주의와 초자연적인 세계와 같은 신화, 인간의 내면에 관련된 삶, 성, 꿈, 환상과 같은 주제를 비합리적이고, 상징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상징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허무함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에 대한 인간적 욕망을 암울하고, 폭력적이며, 에로틱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문학에서 데카당스의 특성을 김양희·박선경(2002)¹³³⁾은 유미적, 감능적, 탐미적 세련된 기교와 회화에서는 삶, 죽음, 사랑, 성, 꿈, 내면세계로 분류하였으며, 서순승(1999)¹³⁴⁾은 저항, 몰락, 도착, 타락, 지나치게 예민한 신경, 마취상태와 마취효과에 대한 집착, 소망이라 하였고, 한성철(1996)¹³⁵⁾은 극도의 허무, 절망, 교묘히 타락된 신비주의, 퇴폐적, 반항, 타락이라 하였다.

패션에서 데카당스는 한수연(2006)¹³⁶⁾이 ‘데카당스는 퇴폐적인 문화에 미적동기를 구하는 감각주의에서 온 것으로, 사악하고 인공적인 것의 즐거움, 새롭고 복잡한 감성에 대한 갈망, 정신적인 경험의 경계선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었고, 퇴폐성은 성애화된 폭력에 대한 암시로 자극적 향락, 이상한 감수성을 의미하며 팜프파탈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정선(2000)은 ‘데카당스의 이미지는 퇴폐, 쇠퇴, 허무, 절망과 같은 부정적

131) 정부용(2008), op.cit.,

132) 이정호(2011), op.cit.,

133) 김양희, 박선경(2002), op.cit., p.84.

134) 서순승(1999),op.cit.,

135) 한성철(1996), op.cit.,

136) 한수연(2006), op.cit., p.147.

인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데카당티즘이 「퇴폐주의」라고 소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창준(2012)은 데카당스의 특성을 ‘생물학적인 약화, 극단적인 신경의 예민함, 적극적 삶에 대한 회의, 투박하고 건강한 능력의 약화, 삶에의 의지의 약화와 죽음에 대한 공감 등 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은 진부한 일상의 현실에 대한 보완이자 고통스러운 반항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으며, 선정희·유태순(2001)¹³⁷⁾은 패션과 메이크업의 데카당스의 특성을 악마적인 특성, 이국취향 특성, 혐오적인 특성, 퇴폐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안선경(1994)¹³⁸⁾은 데카당스 패션의 특징을 혐오, 세기말적, 염세주의, 이국취향으로 분류하였으며, 변영희(2009)¹³⁹⁾는 허무적이며,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으로 빠지는 경향으로 흐르고 병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하였고,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데카당스 메이크업을 현대의 암울한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으로, 남성적인 강인함과 퇴폐적인 분위기, 강한 개성, 유니섹스한 스타일에 골격미를 강조한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데카당스 선행논문으로 고찰된 특성은 허무성, 절망성, 퇴폐성, 타락성, 폭력성, 이상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자는 데카당스의 특성을 퇴폐성, 이상성, 이국성으로 분류하고, 오프 쿠튀르 컬렉션에서 나타난 데카당스의 미적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137) 선정희, 유태순(2001), op.cit., p.72.

138) 안선경(1994), op.cit., p.70.

139) 변영희(2009),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2), p.35.

<표 1> 데카당스의 미적특성 관련 선행연구

| 선행연구자 | 미적특성 |
|---------------|--------------------------------|
| 안선경(1994) | 협오성 퇴폐성 저항성 이국성 |
| 선정희·유태순(2001) | 협오성 악마성 퇴폐성 이국성 |
| 김양희·박선경(2002) | 이상성 냉소성 극도의 기교 성적 퇴폐성 |
| 한수연(2006) | 이상성 도착성 폭력성 성적 퇴폐성 |
| 변영희(2009) | 이상성 허무성 퇴폐성 타락성 |

| |
|--------------------------|
| 본 연구 |
| 퇴폐성 이상성 관능성 이국성 |

IV.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표현된 메이크업의 데카당스적 특성

1. 퇴폐성

퇴폐성은 경제의 불황에 따른 좌절감과 문명의 위기로 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상실을 지각하여 이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항의하는 동시에 현대문명의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시적, 인공적으로 표현하는¹⁴⁰⁾ 것으로, 탐미적 경향과 절대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전반에 걸친 질서의 파괴와 윤리도덕의 타락 현상으로 나타난다.

퇴폐성은 예술의 창조적 가능성이¹⁴¹⁾ 결핍되어 정상적인 힘 또는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 따위로 빠지는 경향이 강하며, 병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미술양식에서 전파되었다.

따라서 퇴폐성은 암울성, 저항성, 혐오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에서는 정형화된 패션쇼 메이크업과는 달리 혐오스럽고 반항적이며 끔찍한 이미지를 표현하는¹⁴²⁾ 메이크업으로 표현될 수 있고, 왜곡의 형태로서 ‘그로테스크’ 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난다.¹⁴³⁾ 또한 괴기스러운 문양이나 혐오스런 문양의 타투를 사용하여 혼돈과 무절제 속에서 오는 폭력성과 집단성, 저항성을 나타낸다.¹⁴⁴⁾

140) 선정희, 유태순(2001), op.cit., p.69.

141) 이원미(2008), “베르사체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미적 특성-도나텔라 베르사체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142) 박련화(2012), “패션잡지에 표현된 판타지 메이크업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143) 이미자(2008), op.cit., p.26.

1) 암울성

암울성은 어두컴컴하고 답답함, 절망적이고 침울한 의미로 해석되며, 사회적 분위기의 허무함과¹⁴⁵⁾ 병, 고독, 욕망, 시기, 절망 등을 주제로¹⁴⁶⁾ 삼아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 암울성의 표현을 침울하고, 병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9>는 뷰티 메이크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촉촉한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고, 눈썹의 색과 헤어의 색의 톤을 유사한 색상의 갈색(brown)톤으로 처리하였으며, 립은 누드 톤의 오렌지색상을 사용해 주었다. 아이메이크업은 패션메이크업에서 나타나지는 면의 확장을 이용하여 블랙새도우로 서클 형태로 퍼 발라주어 소외되고 병적인 분위기를 극대화 시켜주었다. <그림 20>은 피부표현에 있어서 모델의 피부 색상과 유사한 톤으로 모델의 피부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뷰티메이크업을 나타내었고, 아이메이크업은 보라색 새도우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눈썹 뼈의 위, 광대까지 눈의 주변의 면을 채색하여 병약하고 침울한 냉소적 분위기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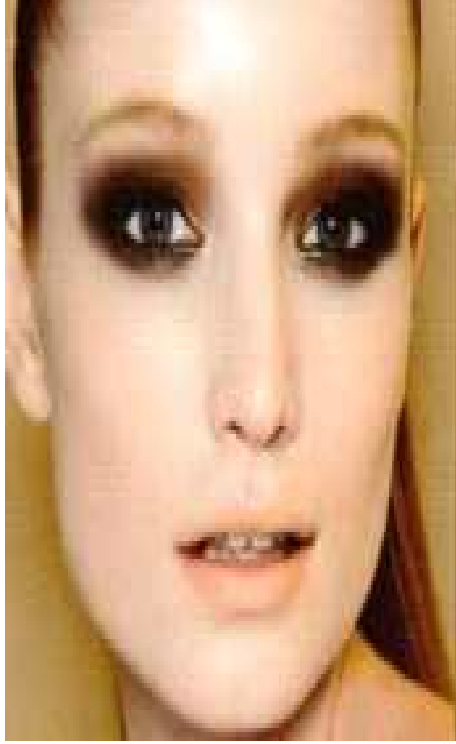
프레다 사탈(Fred Stahal)은 2014 S/S Collection에서 피부표현은 그을린 듯한 브론즈색상을 사용하여 건강한 이미지를 뷰티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 반면 아이메이크업으로 블랙 아이새도우를 사용하여 아이라인의 선의 확장을 가로로 굵게 하여 울어서 번진 듯한 표현을 나타내어 암울한 내적 감정을 표현하여 건강함과 암울함의 무질서함을 나타내어 퇴색되고 공허한 분위기를 표출하였다(그림 21).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2007 S/S

144) 최미라(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西 鬼)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p.55.

145) 박혜경(2011), op.cit., p.74.

146) 이경희(2007), op.cit., p.22.

Collection에서 화사한 피부표현의 뷰티메이크업과, 아이메이크업에서 차가운 색상의 네이비 색상과 따뜻한 색상의 라이트 블루 색상을 사용하여 눈썹에서 광대까지 넓은 눈 주변의 면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gradation) 시켜 병약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으며, 오브제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눈물 모양의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절망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울함을 극대화 시켰다(그림 22).



<그림 19> Versace 2012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2, issue.9,
p 29」



<그림 20> Valentino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029#135314_1_8 (2015.04.28 검색)



<그림 21> Fred Sathal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fred-sathal-beauty-haute-couture-fw-14-2-77977.html#7> (2015.04.28 검색)



<그림 22> Jean Paul Gaultier 2007
S/S Collection

출처: <https://s-media-cache-ak0.pinimg.com/236x/a0/2d/7d/a02d7d03eb73f7cc82d6d528e2b7d8a0.jpg> (2015.04.28 검색)

2) 저항성

저항성은 기존의 권력과 가치체계에 대항하고, 지배사회가 지시하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¹⁴⁷⁾ 실험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대한 이단적인 표현방법으로 나타나며, 대중사회가 정해놓은 상식적인 미적 가치를 붕괴하며 키치성,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냈다.¹⁴⁸⁾

오트 쿠튀르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저항성의 표현은 형태의 과장, 컬러의 과장, 피어싱, 문신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3>은 매끈한 질감처리의 피부표현과 눈썹의 각을 높게 하여 그려 신경질적인 느낌의 뷰티 메이크업을 나타냈고, 눈에는 크림소재의 새도우를 선택하여 눈의 면적을 이용하여 주황색(orange), 노랑색(yellow)과 파란색(blue)의 색의 대비를 통해 저항성을 실험적 정신이 강한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립의 표현은 저명도의 고채도 색상인 버건디(burgendy) 색상을 어두운 느낌을 자아냈다.

<그림 24>는 집단적 결속력의 상징인 문신을 컬렉션의 주제와 연계하여 표현한 오브제 메이크업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얼굴 전체에 검정 비닐 소재의 천으로 둘러싸서 불쾌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반항적 느낌의 의상과의 조화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저항상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2011 F/W Collection에서는 피부를 매트하게 질감처리 하고 헤어의 색과 동일한 색상의 밝은 갈색(light brown)을 이용하여 조화로운 뷰티메이크업을 나타냈고, 아이메이크업에서 검정색으로 눈 전체라인을 따라 중간 굵기의 선으로 채워 눈꼬리를 살짝 위로 그려 날카롭게 표현하였으며, 헤어의 펑키한 스타일로 메이크업의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나타냈다(그림 25).

147) 이수현(2013), “펑크 이미지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148) 김활란(2014), op.cit., p.48.

2012 F/W Collection에서는 매끈한 질감처리의 피부표현을 하여 뷰티메이크업을 나타냈고, 눈의 아이라인을 날카롭고 길게 그려 선의 과장으로 반항적인 내적감정의 표현을 실험성이 강한 패션메이크업으로 표현해냈다. 또한 빨간색(red)의 컬러를 사용하여 입술에 발라줌으로써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타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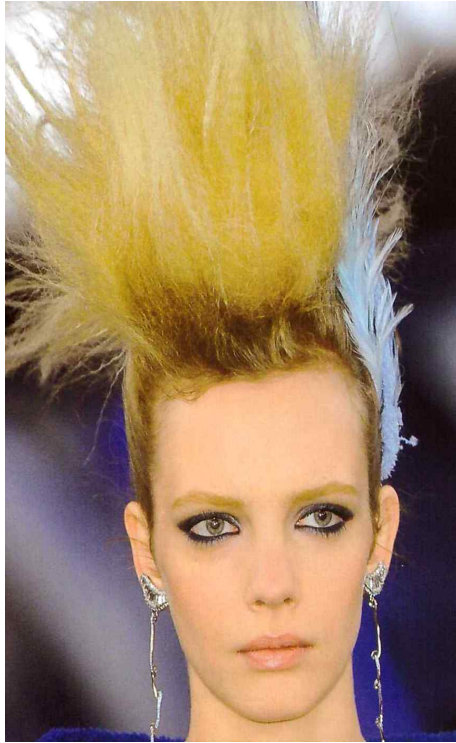
<그림 23> Christian Dior
2011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397 (2015.04.28 검색)



<그림 24>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brankopopovic.blogspot.kr/2014/01/maison-martin-margiela-ss-2014-haute.html> (2015.04.28 검색)



<그림25> Jean-Paul-Gaultier 2011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1, issue.7,
p.27」



<그림 26> Jean-Paul-Gaultier 2012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2,
issue.9, p.27」

3) 혐오성

혐오성은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써 기묘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두려움 또는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 대해 사용되며 소외, 고독, 움츠림, 무감각 등 병적이며 부정적인 단어들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득세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¹⁴⁹⁾

또한 혐오성은 추함의 의미로 함축될 수 있으며, 추한 것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옹색한 한계에 비해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 희극적인 것, 추한 것이 갖는 무한한 다양성이 강조되며 특히 죽음에 대한 주제에 열중한다.¹⁵⁰⁾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혐오성은 기존 메이크업 틀을 벗어나 패치나 형태의 변형, 어두운 색의 사용, 색의 극단적 대비 등을 사용하여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7>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피부를 매트하게 질감 처리하여 표현하고, 눈썹은 본래의 형태를 무시한 채 형태를 왜곡시켜 비정상적으로 각이 지고 두껍게 선을 처리 하였으며, 아이섀도우 또한 형태를 무시하여 눈썹 뼈 아래에서 코의 사이드, 눈 밑 홀을 눈 바깥의 면을 이용하여 블랙 섀도우로 타원형의 형태로 그려 왜곡된 아이메이크업을 하여 엽기적이고 기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립 메이크업은 모델의 입술형태를 무시한 채 크게 그려 블랙과 브라운의 색을 이용하여 발라주어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 <그림 28>은 얼굴 전체에 크림 형태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화이트와 블랙으로 채색하여 일반적인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을 해골형태로 표현하여

149)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特性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1.

150) 김양희, 박선경(2002), op.cit., p.77.

혐오스러움을 나타냈으며, 광대 옆면과 목 전체의 면에 검정색 패치를 붙인 오브제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공포스럽고 끔찍한 이미지를 자아냈다. 튀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는 1990 S/S Collection에서 얼굴 전체를 하얗게 표현하고 광대에 웨딩을 넣어 윤곽의 형태를 강조하여 표현한 뷰티메이크업과 눈 전체에 블랙 새도우를 발라주고, 그 위에 남색(navy)을 이용하여 눈썹 뼈에서 관자, 이마, 헤어라인 시작 부분까지의 면에 채색을 해주어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패션메이크업을 나타냈으며, 입술은 부분적으로 패션메이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델의 메이크업과 의상과의 조합을 이용한 블랙의 반짝이는 립 글로즈를 발라주어 공포스럽고 괴상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아가미 형태의 오브제를 이용한 오브제 메이크업을 활용하여 끔찍하고 혐오스러움을 더욱 극대화시켰다(그림 29). 온 오라 투뷔(On Aura Tout Vu)는 2015 S/S Collection에서 얼굴 전체를 매끄럽게 질감 처리하여 눈썹은 모델의 눈썹 형태는 자연스럽게 처리하였고, 눈은 브라운의 아이새도우를 이용하여 눈썹 뼈까지 칠하여 눈의 음영을 나타냈으며, 볼과 립은 코랄 빛이 감도는 색을 이용한 뷰티메이크업을 하였다. 반면, 반짝이는 블랙 스톤이 부착되어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턱의 형태를 왜곡, 변형시켜 가학적이고 괴상한 혐오감을 나타냈다(그림 30).

이와 같이 퇴폐성은 암울성, 저항성, 혐오성으로 분류되어지고 암울성은 무력하고 냉약한 분위기와 고독, 시외를 차가운 색상이나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여 퇴색되고 공허한 냉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저항성은 날카로운 내면의 감정을 색의 과장, 선의과장, 색의대비, 문신, 메탈, 핑키한 스타일 등을 통해 오늘날 인간생태계와 사회에 초래된 급격한 변화로 균형이 깨어진 생존적응 양식에 속하는 공격본능을 표현하였다. 혐오성은 주로 비(非)정상적이고, 괴상하며 형태를 왜곡시켜 가학적이고 섬뜩한 강한 충격효과를 주어 이성과 의지를 표방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퇴폐성을 병적이고 기괴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Christian Dior 2006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fw-06-07-haute-couture/christian-dior/collection/84143> (2015.04.28 검색)



<그림 28> Riccardo Tisci 2015
F/W Collection

출처: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model-poses-backstage-after-the-givenchy-menswear-fall-news-photo/462041138> (2015.04.28 검색)



<그림 29> Thierry Mugler 1990
S/S Collection

출처: http://40.media.tumblr.com/tumblr_lo5nmpK8yL1qmbiswo1_1280.jpg (2015.04.28 검색)



<그림 30> On Aura Tout Vu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on-aura-tout-vu-haute-couture-s15-83654.html#4> (2015.04.28 검색)

2. 이상성

이상성(理想性)은 이상이 가지는 성질, 이상에 근거를 두거나 이상의 의의를 강조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심리적 이상성, 사회적 이상성, 성적이상성으로 분류되어진다.

붕괴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초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과, 성적인 이상에 의한 양면성으로 나타난다.

오프 쿠티르에서 표현된 메이크업은 세기말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인공적인 이상한 형태로 데카당스를 표현하였다.¹⁵¹⁾

1) 양면성

오프 쿠티르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양면성 표현은 이질성으로 묶여진 주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거나,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의 차용, 성(sex)에 대한 양면성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성의 혼합 이미지는 양성성과 중성적 이미지로 해석되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공유한 사람, 즉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 이른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 중 바람직한 것만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성적 양면성은 성격과 행동이 독립적인 남성과 부드러운 여성상의 기존의 성 역할에 매이지 않는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격을 말하며, 여성의 이미지와 남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⁵²⁾ 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오던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적 양식의 절충적인 융합으로 한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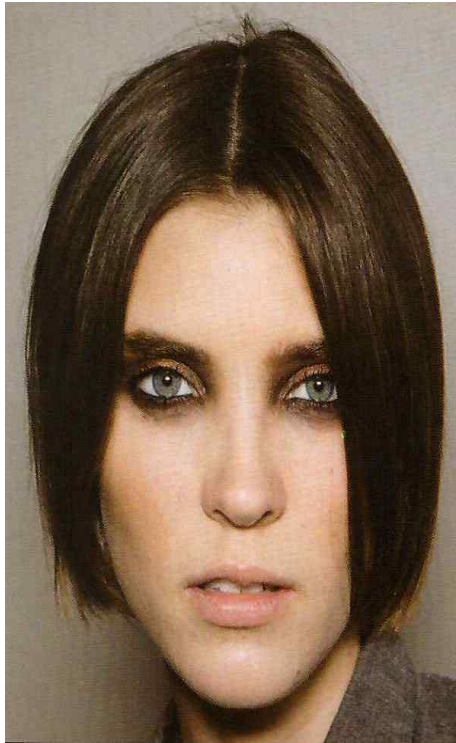
151) 김양희, 박선경(2002), op.cit., p.79.

152) 박련화(2012), op.cit., p.59.

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어 현대적인 방향성을 띄게 된다.¹⁵³⁾

<그림 31>은 뷰티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모델의 피부 톤보다 어두운 색상을 발라 매트하게 질감처리하고, 눈썹은 거칠게 터치한 직선형태로 그어 여성의 얼굴에 남성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성적 양면성을 나타냈으며, 아이섀도우는 짙은 갈색으로 눈 전체에 음영을 주어 퇴폐적인 느낌을 주었다. 반면 립과 볼은 부드러운 코랄과 오렌지를 이용하여 양면성을 나타냈다. <그림 32>는 촉촉한 질감의 피부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하고 아이라인은 점막만 채우고 속눈썹부분만 깨끗하게 올려 마스크라 해준 뷰티 메이크업으로 소녀를 나타낸 반면 뱅 헤어스타일을 하여 소년을 함께 나타내서 이질 되는 두 가지 성질이 한꺼번에 나타난 양면성이 극대화되어 표현되어졌다. 샤넬(Chanel)은 2013 S/S Collection에서 뷰티 메이크업을 사용하여 얼굴 전체를 매트하게 질감 처리하여 눈썹은 굵고 진하게 선을 긋고 광대를 살려 치크를 해주어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립은 누드 톤과 아이라인은 얇고 짧게 그려 눈만 또렷하게 해주고 속눈썹을 올려 눈을 동그랗게 표현해주어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성적 양면성이 극대화되었다(그림 33)(그림34).

153) 김양희, 박선경(2002), op.cit.,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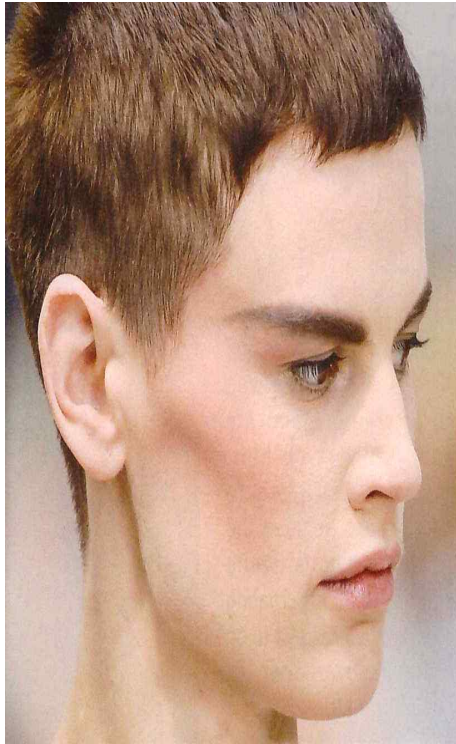
<그림 31> Stephane Rolland 2013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0,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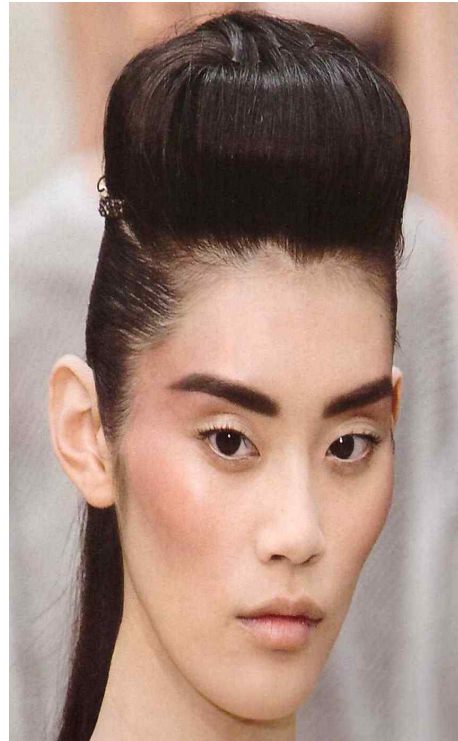
<그림 32> Rad Hourani 2013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1, p.35」



<그림 33> Chanel 2013
S/S Collection 1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1,
p.25」



<그림 34> Chanel 2013
S/S Collection 2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1, p.25」

2) 전설과 신화성

전설과 신화성은 사람들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리적 부정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전설과 신화성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신화로 직접 연결시켜 인간의 이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뱀과이어 메이크업, 초월적 힘이 존재하는 신화적, 전설적 인물의 부분적 묘사를 하여 아름답거나 무서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35>는 패션메이크업과 아트메이크업, 오브제메이크업이 융합적으로 나타나 얼굴 전체에 갈색으로 피부메이크업을 하고 눈썹에는 본래 형태를 왜곡하여 굵고 처진 아치형으로 선 처리 해주었으며, 왜곡시킨 눈썹 아래에서부터 눈 위 쪽 범위까지 부분적인 면에 금색(gold)필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발라 신비감을 자아냈다. 눈의 언더에는 은색(silver)의 크림 색도우를 이용하여 길게 발라준 후 그 아래 또한 블랙의 라인을 길게 선 처리하여 기괴스러움을 나타냈으며, 입술 또한 아이메이크업에 사용된 금색 필의 촉촉한 질감을 가진 립스틱으로 전체를 발라주었고, 이집트의 벽화에 나오는 긴 부리의 오브제를 턱 밑에 사용하여 하토르¹⁵⁴를 연상하게 하여 이집트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신의 모습을 극대화 시켰다. <그림 36>는 얼굴 전체에 하얗고 매트하게 질감처리를 하여 눈썹은 굵고 날카롭게 처리하여 인간이 아닌 모습을 나타내었고, 아이메이크업은 비(非)정상적으로 눈 위 라인과 언더 라인을 길게 선을 그리고 광대를 극대화시켜 나타냈으며, 눈 위 아리아인과 언더 라인을 선으로 길게 그려 눈을 과장시켰다. 립은 갈색으로

154) 하토르: 태양의 신인 라(Ra)의 딸이자 역시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호루스(Horus)의 아내이다. 그리스신화의 아프로디테(Aphrodite:로마신화의 비너스)와 동일시된다. 하늘·사랑·기쁨·결혼·춤·아름다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신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사랑과 미의 여신을 의미한다.

발라 비(非)인간적으로 보이게 한 패션메이크업으로 켄타우로스¹⁵⁵⁾의 이미지를 나타내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신비를 둔 이상성을 나타내었다.

디올과 장 폴 고티에는 Collection에서 신비로운 뱀파이어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디올은 2010 S/S Collection에서 얼굴 전체를 하얗게 표현하고 축축한 질감으로 처리하여 일반 뷰티메이크업과는 다른 패션메이크업을 선보였으며, 눈썹은 헤어(hair)색과 동일한 옅은 브라운 색으로 아치형의 형태로 그렸다. 아이라인을 가늘고 길게 그려 날카로운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피를 떠올리는 붉은색의 립스틱을 발라 아름다운 뱀파이어를 표현한 반면 고티에는 2014 F/W Collection에서 하얗고 축축한 피부표현을 하였으며, 눈 주변에 광범위하게 붉은색의 크림 섀도우를 이용하여 넓게 발라주어 서클형태를 만들어 마치 피에 미친 뱀파이어를 나타냈으며, 립은 과장된 형태로 크게 그려 붉은색으로 칠해 주어 무서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오리지널 뱀파이어를 나타냈다(그림 37)(그림 38).

이와 같이 이상성은 양면성, 전설과 신화성으로 분류되어지며, 양면성은 이질적인 성(姓)적 양면성 표현, 색의 양면성, 형태의 양면성을 이용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였고, 전설과 신화성은 주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형태를 왜곡시키고 다양한 오브제사용, 색의 과장 등을 통해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해 신념을 두어 현실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였다.

155) 켄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의 괴물



<그림 35> Christian Dior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CAMQjxw&url=http%3A%2F%2Fwww.inspirationbycolor.com%2Fdior-spring-2004-haute-couture-egyptian-gold%2F&ei=yX-JVY_yAeLamgWFn4CQDw&bvm=bv.96339352,d.dGY&psig=AFQjCNG22fqSlsqmFdABsssZDOhccu2XLA&ust=1435160780088508&cad=rjt (2015.04.26 검색)



<그림 36> Jhon Galliano 2009
S/S Collection 1

출처: <http://www.bainayi.com/upfiles/image/2009/05/05/03/46/4da141943>
(2015.04.26 검색)



<그림 37> Christian Dior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024&pt=3#134658_1_1 (2015.04.26 검색)



<그림 38> Jean Paul Gaultier 2014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nstallation.com/2014/07/backstage-at-jean-paul-gaultier-fw-14.html> (2015.04.26 검색)

3. 관능성

관능성은 감각 기관 속을 자극해서 감각적인 미를 표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강렬한 자극이나 육체적 쾌감 또는 욕망 추구를 뜻하기도 한다.¹⁵⁶⁾

페티시적인 관점을 반영한 스타일로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관능성은 여성의 섹시함의 상징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음울하거나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을 병적으로 표현해낸다. 에로성과 도착성으로 분류되어 지며, 에로성은 모든 문화의 전통, 신화, 종교, 풍습, 예술 등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근저에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성적인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뜻하며, 에로티시즘과 유사한 개념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¹⁵⁷⁾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표현된 메이크업의 관능성은 성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강조된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표현하며,¹⁵⁸⁾ 세기말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본능이나 감정 또는 덕성의 이상(異常)으로 사회나 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을 나타내는 도착성이 나타난다.

156) 김활란(2014), op.cit. p.20.

157) ibid., p.48.

158) 김중원(2013), op.cit., p.14.

1) 에로성

에로는 성적인 자극이 있는 것을 뜻하며,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있는 심정적 애정, 성적 욕망의 예술적 표현으로 정의된다.¹⁵⁹⁾

<그림 39>는 뷰티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매끈한 질감 처리를 해주어 붉은 자연스럽게 피치계열로 치크를 해주었고, 립은 오렌지 빛이 감도는 빨간색을 이용하여 입술의 형태를 본래보다 좀 더 크게 그려 발라주어 여성의 관능적인 섹시미를 표현하였다. 눈은 차가운 남색을 이용하여 캣츠아이 형태로 길게 그려 표현하여 에로적인 여성의 모습을 극대화시켜 나타냈다. <그림 40>은 얼굴 전체에 본래보다 약간 어두운 색을 전체적으로 발라 건강한 여성미를 표현하였고, 눈썹의 선을 아치 형태로 처리하여 관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아이섀도우는 갈색으로 눈썹 밑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어 눈에 음영을 넣고 블랙으로 아이 홀까지 전체적으로 바른후 블랙 라인으로 눈 위에서 길게 그려주고 언더를 꼼꼼하고 굵게 선처리를 한 패션 메이크업으로 퇴폐적인 관능미를 극대화 시켰다. 아르마니 프리베(Aarmani Prive) 2013 F/W Collection에서는 촉촉한 질감으로 모델의 피부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피부메이크업을 하고 눈썹은 각진 형태로 선을 그린 후 립은 빨간색을 선택하여 발라 형태를 과장시킨 큰 입술을 나타낸 뷰티메이크업을 이용한 강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눈은 패션 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아이섀도우 형태로 아이 홀 위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눈 위로 길게 그려주고 눈 아래 접막의 2/3정도에 검정 라인으로 그려 매혹적인 여성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그림 41). 디올은 2013 F/W Collection에서 뷰티메이크업에서 표현되는 촉촉한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하얗게 피부를 나타내고, 눈에는 피치톤이 감도는 크림 섀도우를 이용하여 눈 앞 홀, 뒷 홀에 발라 음영처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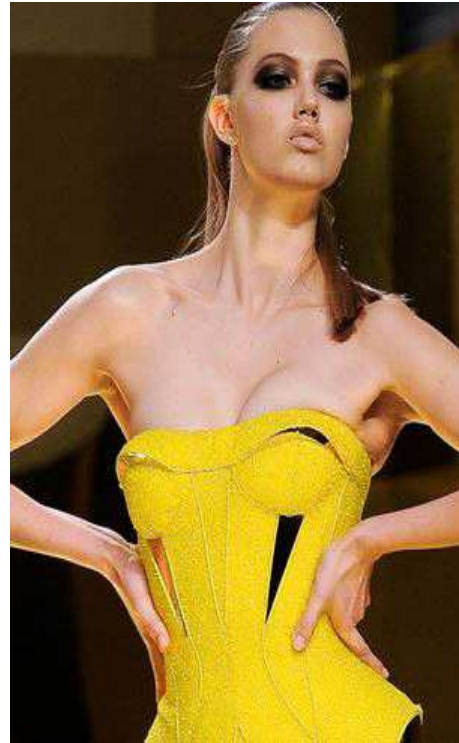
159) 문아영(2015), “에로티시즘 광고에서 힙합문화 반영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하였다. 또한 아치형의 눈썹을 그려 여성의 에로적인 모습을 반영하였으며, 눈 위의 라인 1/2에서부터 검정색으로 눈꼬리보다 길게 그어 길고 매혹적인 눈의 형태를 만들었다. 아트메이크업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입술은 핑크색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동일한 색상의 반짝이는 스톤을 붙여 여성의 관능미를 극대화 시켰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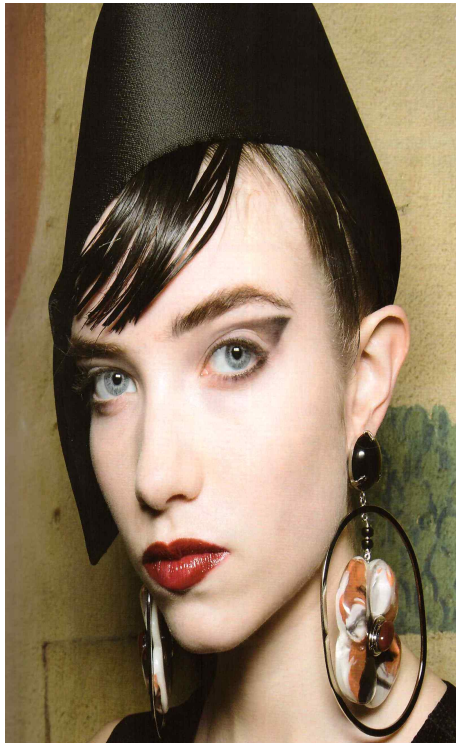
<그림 39> Christian Dior 2012
F/W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christian-dior-hc-a12-2-26333.html#23>
(2015.04.26 검색)



<그림 40> Versace 2012
F/W Collection 2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553#181053_2_1
(2015.04.26 검색)



<그림 41> Armani Prive 2013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1, p.25」



<그림 42> Christian Dior 2013
F/W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1, p.23」

2) 도착성

세기말적 분위기의 사회현상에 의해 우리는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수많은 병리적 도착증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일상에서의 ‘일탈’과 비교적 손쉽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병리적 도착증은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변태’라는 비난의 어조를 띠고 쓰이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병리적 도착증을 지칭하는 S/M(사도-마조히즘), 물신주의, 페티시즘(fetishism), 관음증, 노출증 등의 다양한 하위개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착의 변형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범람 속에서 도착성은 우리에게 ‘성도착’, ‘성 도착증’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며,¹⁶⁰⁾ 극단적이거나 병적인 에로티시즘의 퇴폐적인 현상으로 설명되어 진다.

<그림 43>은 하얗고 매끈한 피부로 파운데이션 처리하고 자연스러운 아치형의 눈썹형태를 만들어 뷰티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갈색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의 아이홀 전체를 연하게 펴 바르고 검정색의 새도우로 눈 앞머리에서 본래의 눈 형태보다 길이를 과장되게 발라 새도우 한 곳 바로 위, 아래를 검정색 라이너로 길게 그려 음침하고 형태의 과장으로 퇴폐적이고 병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립 표현 또한 어두움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어 입술의 구각을 살려 강하고 병적인 에로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44>는 자연스러운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고 눈썹은 아치 형태로 그려 검정색으로 연하게 눈의 홀과 언더를 연결시켜 형태의 변형을 통한 아트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립 색은 전체 메이크업을 조화로움을 위해 강한 눈과 대비되는 누드색으로 발라주었다. 또한 업스타일 한 머리전체에 검정과 갈색을 이용하여 표범무늬를 넣어 변태적 이미지를 자아낸 아트메이크업으로 병적인 관능성을 나타냈다.

160) 나지현(2008), “2000년 이후 한국영화에서 도착성의 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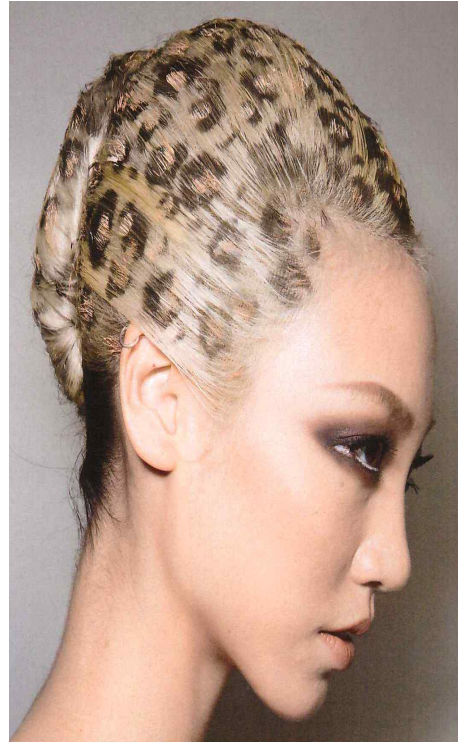
샤넬은 2012 S/S Collection에서 모델의 피부색과 동일한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어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하였으며, 눈썹 또한 모델의 눈썹의 형태에 맞게 선을 그려 뷰티메이크업을 나타냈고, 블랙색상의 새도우와 굵은 선을 눈의 라인에 따라 그려주어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눈의 전면적인 장식으로 쓰인 뱀의 껍데기 모양의 시스루 소재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통한 성 도착증과 연관이 있는 스타킹을 떠오르게 하는 변태적 성욕을 극대화 시켜 나타냈다(그림 45). 존 갈리아노는 2009 S/S Collection에서 남자모델에게 피부색과 동일한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의 형태는 아치로 선을 그렸으며, 눈 전체에 갈색으로 음영을 넣어 뷰티메이크업을 통한 여성성을 나타낸 거부감이 드는 병적 도착성을 나타냈으며, 여성성이 강조되는 핑크색의 모자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변태성욕을 통한 병적인 에로성을 극단적으로 나타냈다(그림 46).

이처럼 관능성은 에로성과 도착성으로 분류되어지며, 에로성은 선정적이고 강한 색채를 통한 유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특히 빨간색에서 그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입술의 형태변형, 아이라인의 과장, 아이새도우를 통한 여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반짝이는 색이 있는 패치 등을 이용하여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표현한다. 도착성은 병리적 도착증을 뜻하며, 선과 색의 과장, 형태의 과장, 변태성이 숨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일상에서 일탈, 상상속의 에로 등을 표현해낸다.



<그림 43> Stephane Rolland 2012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2, issue.8,
p.33」



<그림 44> Jean Paul Gaultier 2014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4
issue.12, p.26」



<그림 45> Chanel 2012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2, issue.8,
p.34」



<그림 46> John Galliano 2009
S/S Collection 2

출처: <http://www.bainayi.com/upfiles/image/2009/05/05/03/46/4da141943> (2015.04.26 검색)

4. 이국성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반면 정신적으로는 황폐해가고 있으며 기계화, 도시화된 산업사회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은 거부감을 만들어내 현대인들은 동양적이며, 원시적인 이국취향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국적인 경향은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의 표현상을 삼으며,¹⁶¹⁾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로 중국, 일본,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모티브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다.¹⁶²⁾ 즉 메이크업의 이국성은 크게 에스닉 이미지, 프리미티브(원시적인) 이미지, 포클로어(민속적)이미지, 오리엔탈 이미지로 분류되어¹⁶³⁾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복합적으로 보여진다.

1) 동양성

동양성은 오리엔탈리즘으로 패션이나 메이크업에서 등장하며, 오리엔탈리즘은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체재로 삼은 것이다.¹⁶⁴⁾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의 극동 아시아의 문화를 말하며, 신비로운 분위기와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된다.¹⁶⁵⁾

<그림 47> 에서는 모델의 피부와 동일한 피부 색상의 색의 파운데이션을

161) 이경아(2003),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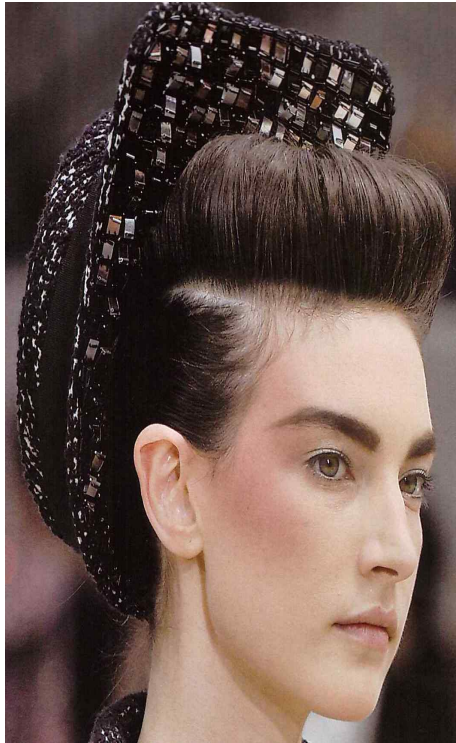
162) 선경희, 유태순(2001), op.cit., p.70.

163) 정승희(2010), op.cit., p.34.

164) 조혜지(2011),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165) Ibid., p.47.

선택하여 매트하게 질감을 처리하고 눈썹은 자연스러운 갈색의 색상을 선택하여 길고 각이 지게 표현하였으며, 눈에는 아주 은은하게 옅은 갈색의 새도우를 펴 발라준 후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눈꺼풀 위의 점막만 채워 자연스러운 눈을 뷰티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치크는 패션 메이크업을 통해 뷰티메이크업과는 달리 치크를 붉은색을 선택하여 볼의 중앙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펴 발라주었고, 헤어를 에도시대 전통 스타일로 하여 동양에서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동양적인 미를 극대화 시켜 나타냈다. <그림 48>은 오브제 메이크업을 통해 태국의 전통 의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란한 색을 가진 은색(silver)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신비로움을 나타냈으며, 얼굴의 피부, 눈썹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상과 형태를 뷰티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오브제와 동 떨어짐을 막기 위해 같은 색상의 은색의 글리터를 입술의 안쪽에서 2/3까지 발라주어 이국적인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나타내었다. 샤넬은 2007 S/S Collection에서 아트메이크업을 통해서 얼굴 전체와 목까지 하얀색으로 발라주었고, 눈썹은 눈앞머리에서 눈썹 끝까지 짙은 갈색으로 인위적으로 처진 일자형을 그렸다. 입술은 연한 핑크색을 발라 주고 눈은 동양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길게 선을 빼서 그려 부분적으로 동양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헤어장식에 대나무 오브제를 사용하여 동양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그림 49). 또 샤넬은 얼굴 전체와 목까지 하얀색으로 바르고, 짧은 상승형의 눈썹을 굵고 진하게 선을 처리 하였으며, 눈은 검정색의 새도를 아이 홀까지 펴 발라주었다. 또 볼 아래에서 귀 쪽까지 붉은색으로 치크를 하였으며 립은 뾰족한 빨간 입술을 표현하고 부채 오브제를 헤어에 장식하여 일본의 가부키를 떠오르게 하는 아트메이크업으로 동양에 대한 동경을 극대화 시켜 표현했다(그림 50).



<그림 47> Chanel 2014
S/S Collection 2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4, issue.12,
p.24」



<그림 48> On Aura Tout Vu 2013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3,
issue.10, p.33」



<그림 49>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1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ss-2007-haute-couture/christian-dior/collection/96074>
(2015.04.27 검색)



<그림 50>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2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ss-2007-haute-couture/christian-dior/collection/96074>
(2015.04.27 검색)

2) 원시성

원시성은 원시주의에서 온 것으로 18세기 프랑스 장자 크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1778)¹⁶⁶⁾에 의해 널리 퍼진 ‘고귀한 미개인(Noble Savage)’, 즉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을 우월하게 여기는 감상적인 생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으며, 윌리엄 루빈(William Rubin,1927~2006)은 원시주의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부족 미술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예술 작품을 창조하려는 경향을 뜻한다고 하였다.¹⁶⁷⁾

오프 쿠튀르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원시성의 표현은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의 거부의 현상으로 자연의 색을 이용하거나, 토속적인 문양, 아프리카의 풍습을 표현한 오브제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림 51>은 모델의 피부와 눈썹을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건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뷰티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아트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눈 전체에 연두색, 초록색, 갈색, 금색을 부분적으로 조화롭게 발랐으며, 립은 골드 빛이 감도는 옅은 갈색을 이용하여 대지를 떠오르게 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림 52>는 뷰티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모델 피부의 색과 눈썹 선의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의 붉은 톤이 감도는 색상을 선택하여 강하고 용맹한 인디언의 용맹성을 아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원시적인 삶의 동경을 나타내었다. 마우리찌오 가란(Maurizio Galante)은 2011 F/W Collection에서 아트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헤어에서 모델얼굴의 1/2까지 초록색으로 전부 뒤덮어 위장을 위한 아프리카 전사들의 채색을 떠오르게 하고, 헤어에 나무소재의 막대기를 양쪽으로 꽂아 원시성을 극대화시켜 나타냈다(그림 53). 온 오라 뚜뷔는 2014 S/S

166)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167) 정승희(2010), op.cit., pp.25-26.

Collection에서 뷰티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모델의 피부의 색상과 눈썹의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아트메이크업을 이용하여 눈썹 바로아래와 눈 앞머리에 하얀색으로 부분적으로 발랐다. 눈에는 검정색 라이너로 실험적이고 기하학적 무늬를 넣어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을 거부하는 원시성을 나타냈으며, 하얀색으로 이마의 끝부분에서 두부의 탑 포인트까지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민속성을 부각시켰다(그림 54).

이와 같이 이국성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기계화와 산업화 속에서 삭막해져 가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동양성과 원시성으로 분류된다. 동양성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화려한 오브제와 색채를 통해 나타나며, 원시성은 인디언의 용맹성, 아프리카 전사들의 원시성과 토속성을 자연의 색이나 문양 등을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1> Christian Dior 2007
S/S Collection 3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ss-2007-haute-couture/christian-dior/collection/96074>
(2015.04.27 검색)



<그림 52> Maurizio Galante 2011
F/W Collection 1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1,
issue.7, p.29」



<그림 53> Maurizio Galante 2011
F/W Collection 2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1, issue.7,
p.29」



<그림 54> On Aura Tout Vu 2014
S/S Collection

출처: 「Chih-Hao Li, IN BEAUTY, 2014,
issue.12, p.36」

V. 결 론

21세기 현대사회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세기말적 불안과 혼란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는 데카당스의 개념과 특성의 현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

데카당스는 쇠퇴와 병적인 감수성, 탐미적인 경향, 비도덕적 자극의 향락으로 치닫는 퇴폐적 경향을 의미하며, 미술, 음악, 패션, 메이크업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데카당스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패션 컬렉션과 패션의 부수적 요소인 메이크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컬렉션 중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표현되는 데카당스 미적특성을 응용한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1세기 패션과 메이크업의 향후 디자인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트 쿠튀르 컬렉션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 미적 특성은 선행 연구와 이론고찰을 통하여 네 가지 요소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데카당스 미적 특성은 퇴폐성, 이상성, 관능성, 이국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폐성은 암울성과 저항성, 혐오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암울성은 무력하고 병약한 이미지를 생기가 없는 창백한 피부로 연출하거나 저채도와 저명도의 차가운 색을 이용한 아이메이크업 등으로 음울하고 냉소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저항성은 형태와 컬러의 과장, 공격적이고 반항, 폭력적 상징인 문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도피와 거부를 표현하였다. 혐오성은 컬러의 과장이나 비정상적이고 괴상한 형태를 선의과

장, 면에 어두운 색 연출 등의 방법으로 섬뜩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이상성은 양면성, 전설과 신화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양면성은 두껍고 각이 진 눈썹 형태와 윤곽을 강조하여 여성모델에게 페미닌한 강한 남성미를 표현하여 중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전설과 신화성은 선의 과장이나 형태의 왜곡, 금색, 은색, 갈색, 붉은 색등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형상을 연출하였으며 이는 현 시대에 대한 부정과 도피를 신화적 존재를 모방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능성은 에로성과 도착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에로성은 어둡고 선정적인 색상의 아이 메이크업 연출이나 레드 버건디 색상의 입술 표현 방법을 통하여 나타났다. 도착성은 블랙 색상과 브라운, 버건디 색상 등을 눈과 입술에 전체나 부분적으로 연출하거나 아이라인의 과장과 오브제 등의 사용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병리적인 현상을 표현하였다.

넷째, 이국성은 동양성과 원시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동양성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표현하거나 일본 에도 시대 전통 헤어스타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양의 신비스러운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원시성은 노란색, 초록색, 갈색, 빨간색 등의 원색의 새도우를 얼굴 전체나 부분적으로 연출하였으며 실험적인 선 처리나 나무 소재의 오브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을 위한 순수한 감정 표출과 원시적인 삶의 동경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데카당스 미적 특성은 괴기스러운 분위기의 퇴폐성, 현실로부터의 탈피를 꿈꾸며 나타나는 이상성, 여성의 에로성과 병적 에로성의 관능성, 신비로운 동양에 대한 동경의 표출과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이국성으로 분류, 도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표현요소를 기반으로 데카당스 미적 특성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개성추구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A. 국내 문헌

- 강근영, 오인영, 이숙연(2003).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 강근영(2012).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별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2012 맥, 바비브라운, 메이크업 포에버 브랜드 중심으로.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8(2). pp.13-108.
-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괴테 저, 장희창 역(2003). 색채론, 서울 : 민음사.
- 김경란(2005). 프랑스 상징주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경진(2010). 邵洵美의 유희주의 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봉(2000). 상징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 김미현(2012). 사실주의와 상징주의 미술작품에 나타난 공간성에 관한 연구-구스타프 쿠르베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설리, 오인영(2009). 블랙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특징. 복식문화연구. 17(4). pp.561-574.
- 김양희, 박선경(2002).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연구」, 복식, 52(8). pp.73-85.
- 김용선, 이정민(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팝아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9(1). pp.175-202.
- 김중원(201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별 디자인 요소 분석 -2010 F/W~2012 S/S의 4대 컬렉션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주연(2002).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식물의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활란(2014). 고스 메이크업에 나타난 블랙 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지현(2008). 2000년 이후 한국영화에서 도착성의 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선옥(1998).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研究-슈우에무라와 일라나 하카비의 메이크업 아트를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니콜 튀펠리, 김동윤 역(2005). 19세기 미술. 서울: (주) 생각의 나무.
- 류진현(2004). 문화현상으로서의 <데카당스> -19세기말 프랑스 문학의 한 흐름-. 불어문학지.58. pp.469-497.
- 목승숙(1997). 유켄트스탈의 문학적 수용-호프만스탈의 초기 산문의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아영(2015). 에로티시즘 광고에서 힙합문화 반영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련화(2012). 패션잡지에 표현된 판타지 메이크업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장애란(1995).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복식. 25호.pp.215-231.
- Gertrud Lehnert,(2005). 박수진 역. 패션: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패션의 세계. 서울: 예경.
- 박은경(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신(2006). 뵐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춘심(2001). 메이크업. 서울: 광문각,
- 박혜경(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광기 이미지 연구-알렉산더 맥퀸 작품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정민(2012). 반미학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수진(2008). 자크테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효진(2013). 메이크업 이미지 유형에 따른 시지각 반응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순승(1999). 토마스만의 Der Tod in Venedig의 연구-데카당스와 그 극복문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정희, 유태순(2001).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pp.55-70.
- 송수원(2008). 영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스티븐리틀 저, 조은정 역(2005). 손에 잡히는 미술사조. 서울: 예경.
- 안선경(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1993). 유럽 상징주의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2012). 현대 주얼리에 반영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예술 양식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양진(2008). 데카당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희진(2011). 뷰티메이크업에 나타난 에어브러시 활용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주(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조화장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질감표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정(2001). 분장(Make-up)이 현대미술에 미친 영향-마르셀 뒤샹, 모리무라 아스마사, 신디셔먼의 작품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7).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연구-아르누보 양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2003).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2001~2005 파리 컬렉션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1998). 샤넬 스타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자(2008).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2000~2008년 4대 컬렉션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현(2013). 핑크 이미지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연(2009). 코디네이트 미학. 서울: 훈민사.
- 이슬(2015).프랑스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의 쇠퇴와 존속에 관한 연구 - 문화의 사회적 생산의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미,(2008). 베르사체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미적 특성-도나텔라 베르사체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2003). 아이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즘 패션 산업연구소(1993). 이브생로랑. 서울: 이즘 패션산업연구소.

-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서울: 자유문학사.
- 장태수 외(2002). 미용학개론. 서울: 교문사.
- 정부용(2008). 다자이 오사무 문학과 데카당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혜지(2011).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라(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西)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영(2013). 파리 오토 쿠튀르의 플리츠기법을 사용한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연구: 아틀리에 로농(Atelier Lognon)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4). pp.105-121.
- 최혜정(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oward Eves 저, 허민 역(1995). 수학의 기초와 기본개념. 서울: 경문사.
-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보라(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2002년~2006년 파리컬렉션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철(1996).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선(2002). 다자이오사무와 데카당스-후기작품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호(2008).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dy Painting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연(2008). 아르누보 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만화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 국외 문헌

Charles-Roux, Edmonde(1979). *Le Temps Chanel*. Paris: Chene-Grasser.

Chih-Hao Li,(2011-2014), In *Beaty*, Richard Lin.

John Storey(1996).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Kawamura, Yuniya(2004)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Oxford: Berg.

Kennet.,F.(1994). *Secret of the Centuries*. New York : Orbis Publishing Ltd.

Laurence Benaim(1993). *Yves Saint Laurent*, Paris : Editions Grasset & Fasquelle.

Richard Martin, Harold Koda(1996). *Christian Dior*.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1983), *Yves Saint Laurent*, New York : Clarkson N. Potter. Inc.

Valerie Steel, Irving Solero(2000). *Fifty years of Fashion*. New Haven : Yale.

Yves Saint Laurent, Helene de Turckheim(1986). *Yves Saint Laurent/par Yves Saint Laurent*. Paris : Herscher.

David Teboul(2003). *Yves Saint Laurent - His Life and Time*, New York. : Empire Pictures DVD.

C.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자료 검색일: :2015.05.02.

보그 이탈리아. <http://www.vogue.it/>. 자료 검색일: 2015.04.27.
스타일 닷컴. <http://www.style.com>. 자료 검색일: 2015.05.05.
아시아 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자료 검색일: 2015.05.0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자료 검색일: 2015.05.15.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자료 검색일: 2015.04.28.
Fashionsing.com. <http://www.fashionising.com/>. 자료 검색일: 2015.04.28.
한겨레 <http://www.hani.co.kr/>. 자료 검색일: 2015.3.24.

ABSTRACT

Ahn, ji young

Makeup·special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modern society is overflowing with anxiety worldwide due to crisis awareness of the World War III o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nd disaster and infectious disease according to serious environmental change.

Due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decadence with sensation of fear and apocalyptic atmosphere is making influence on the field of arts as art, music, fashion, and makeup since 200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research model and point of view for future studies on makeup by analyzing and deduc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ecadence which is expressed on Haute Couture Collection makeup based on characteristics of decadence in philosophy, culture, and art field.

For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case study. Theory consideration was conducted around preceding

research as book, thesis, and academic journal for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case study used academic journal, book, periodical publication, and internet sites to collect visual data by limiting to Haute Couture with strong experimental nature.

Element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ecadence were deduced through cases of Haute Couture collection makeup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ecadence are as follows.

First, decadence was expressed into gloominess, revulsion, and resistance. Gloominess was expressed with lifeless and morbid images in low-brightness color, and revulsion and resistance were expressed through exaggerated form and color, distortion, piercing, and tattoo.

Secondly, abnormality was expressed into double-sidedness, legend, and mythology. Double-sidedness is expressed into neutral images by emphasizing thick angular brows and outline. Also, legend and mythology were mostly expressed through pale skin and burgundy lips or expressed denial for the present age through pale tone shadow and shape variation using objet.

Thirdly, sensuality was expressed into eroticism and perversion. Eroticism was expressed through brown, khaki, and purple eye makeup, highlighted glittering eyes with gold and silver pearl, red burgundy lip makeup, and see-through objet. Through exaggerated eye line and shape, perversion expressed apocalyptic atmosphere and social phenomenon.

Fourthly, exoticism was expressed into Oriental trait and aboriginality. Oriental trait was expressed by using fancy colors, through Japanese kabuki and Chinese opera makeup, and by using objet that reminds Buddhist culture. For aboriginality, fancy colors were used on entire face

or partially, and used thick lines and folksy pattern to express African people who color their skin before they go out to war or hunting.

As explained, decadence aesthetic characteristic in Haute Couture Collection makeup expresses animosity towards the past centuries and has creative and experimental expressive elements. Therefore, various studies on decadence aesthet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rious life styles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in a follow-up study from pursuing personality aspect according to various life style based on such expression elements.